

1993년 겨울수련대회 자료집

1993 년 겨울 수련대회

일시: 1993년 1월 4일 - 6일 (2박3일간)

장소: 서울 송실대내 사회봉사관

주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838-3296~7

용기종기 . 전·속 .

1993년 겨울수련대회 자료집

1993년 겨울 수련대회

일시: 1993년 1월 4일 - 6일 (2박3일간)
장소: 서울 송실대내 사회봉사관
주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838-3296~7

** 짜인새 **

'92년 지택연 하계수련대회	 2
-----------------	---------

제8회 정기총회	 4
----------	---------

제 7 회 정기총회 회의록	 6
1992년 활동 총평가서	 7
지역대표자회의 /15	교사조직분과 /21
자모조직분과 /25	문화홍보부/30
교육분과 /31	개정특별위원회 /43
연대활동 /44	각 지역위원회 /54
회칙	 72
회칙개정안	 79
임원선거관련	 80
신, 구 지역대표자 명단	 82
1993년도 활동전망	 83

다함께 부르는 노래 (아동노래 포함)

1993년 동계수련회 일정표

< 1월 4일 >

시간	일	정	준비및 운영
2:00	접수, 방배치 개회식		사회: 정희연 (부회장) 진행: 노래부르기, 개회선언, 회장님 말씀 광고
3:00	새노래 배우기 지역소개와 지역발표		노래지도: 최 도은 (노래패 '노래선언') 사회: 이선주 (부천 롬비니동산 교사)
6:00	저녁 식사		
7:00	아동 노래와 율동		진행: 인천지역 아동교육분과
7:30	탁아운동론 발제와 질의 응답		발제: 최현숙 (회장) 사회: 김연희 (중부 지역대표)
9:00	조별 토론		조구성: 지역과 나이, 경력등을 고려하여 혼합함.
11:00	또래조별 평가, 나눔 시간		

1. 일정표에 따라 모임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조는 혼합 또는 연령별로, 방은 각 지역별로 이용합니다.
3. 시설물사용에 있어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석회원이 도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역대표께서는 반드시 집행부에 알려주세요.
5. 수련회 기간 중 이름표는 반드시 달고 다니시기 바라며, 자료집은 꼭 챙겨 가지고 다니세요.

< 1월 5일 >

시간	기	상	
7:00	세면, 조깅		책임자: 권오원(대전 대표), 전미경(구로 센터 교사)
8:00	아침 식사		
9:00	탁아운동론 토론발표		진행: 김연희
9:30	아동 교육에 관한 분반 활동		담당: 아동교육분과
12:30	점심 식사		
1:30	지방 자치에 대한 강연		강사: 홍미영 (인천 시의원) 사회: 김동주 (인천 대표)
3:30	총 회		총회준비위원회
6:30	저녁 식사		
7:30	노래 공연 공동체 놀이		전체진행: 놀이분과 노래 분과
11:00	정리 및 취침		

< 1월 6일 >

시간	기	상	
7:00	세면, 조깅		담당: 권오원, 전미경
8:00	아침 식사		
9:00	개정활동 전망, 민탁연대에 관한 발제 및 질의 응답		담당: 개특위, 정책소위
12:00	평 가		
1:00	폐 회 식		사회: 김선자 (북부 대표)

제8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정 기 총 회

일시: 1993.1.5(화) 오후3시-6시

장소: 송실대 사회봉사관

— 순 서 —

1. 민중의례
2. 회원점명
3. 개최선언
4. 의순채택 - 서기 임명
5. 신입회원 인준 (수련회 개최일정에서 신입회원 소개로 대신함)
6. 전 회의록 낭독
7. '92 사업보고 및 승인
8. 감사보고
9. '92 결산보고 및 승인
10. 회칙개정
11. 보궐 임원 선거
(부회장 1인, 감사 2인 선출)
12. 신임지역대표자 인준
13. '93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14. '93 예산안 승인
15. 기타
16. 폐회

제7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원 점명 - 전회원 197명, 정회원 150명 중 115명 참석으로 회의성립
 2. 신입회원 인준 - 14개소 인준
 3. 사업보고 및 승인 - 전회원 동의 및 재청으로 승인
 4. 감사 보고 - 자체영수증의 필요성, 국내후원자 관리와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회비 미납 탁아소에 대한 점검 필요, 회비 인상 요구등이 보고됨
 5. 재정보고 및 결산 승인 - 전회원 동의 및 재청으로 승인
 6. 회칙 개정 - 1장 4조 2항, 5항 용어정리 및 수정
2장 8조 징계조항 첨가, 청문의 권리 첨가
3장 부서 근거 조항
4장 7절 30조 부회장 임기
- 등 개정조항에 대해 지역대표자회의에 위임, 1992년 1월 지대의에서 최종 회칙 개정 통과
7. 회장단 선출 - 회장 최현숙, 부회장 양은희, 정희언
 8. 감사 선출 - 임정숙, 유옥순, 남미영
 9. 신입 지역대표자 인준, 지도위원에 김경태 전회장 추대
 10.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 '92년 1월 지역대표자회의에 위임
 11. 예산안 승인
 12. 기타 - 회비 인상 (오천원에서 일만원으로)

< 1992년도 활동 총평가서 >

1. 평가에 들어가기 앞서

91, 92년은 지탁연 조직 발전에 있어서나 개정투쟁의 전면화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지난 2년간의 활동목표는 그안에 질적 변화를 포함한 채로 거의 동일할 수 밖에 없다. 즉, 9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과적 측면을 더한층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내고 사업수행에서 나타나는 오류나 한계는 즉각적으로 극복방안을 마련해내는 것이 92년 사업전체를 관통하는 목표이자 원칙이었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사안을 거치면서 전년에 비해 더욱 폭넓은 활동이 요구되었다.

92년 1월 총회에서 천명되었던 지탁연 92년 활동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지탁연내 연합체적 결합도를 높여내기 위하여 조직개편의 수행 및 민주집중 원칙의 실현, 규율준수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기풍을 세운다.
- 2) 지원요구투쟁을 중심으로 객관적 정세활용속에서 개정 활동의 기반을 넓혀낸다.
- 3) 탁아운동 주체 역량 강화 및 세력 확대를 꾀한다.
- 4) 정책 생산의 기능강화 및 선전활동 강화
- 5) 일상활동의 내용적 축적과 개정활동간의 결합을 높인다.

2. 92년도 사업 일정

	전체 행사	분 과	지역	연대	간행물
1	총회, 동계수련회, 지방지역위원회, 신규입원합숙	중앙분과 개편, 정책소위, 개특위 재편			
2	총선대책활동 시작, 자활대표 교육, 서울시청 방문(양성교육 요구안)	어린이날 행사 준비 2차 신진교육			

3	3.8여성대회 총선활동 중간간부대회 7기신진교육 강좌 시작 서울시에 제안 서 제출	교사, 탁아소 실 태조사 정책연구부 신설	지역별 시, 구 보 육위 참석 인천 민탁모임 구성	전민협 발기대 회	
4	보사부 질의		광주 시조례제정 간담회	직장탁아 간담 회, 여인 통일 문제세미나 참 가, 경제활동을 통한 비공식 부문 여성조직 화 방안 토론 회 참가	
5	어린이날 행사 자활 체육대회		인천시 탁아예산 확보 지역별 어린이날 행사	전교조, 학부모 회, 교대와 어 린이날 행사 준비모임	교사소식지 준 비호 「탁아자원 활 동이란?」
6	요구대회 사무실 이전 신진교육강좌 마감	1차 아동관 토론 회 마감		남북한 탁아관 련세미나 참석	직장탁아 교육 선전 지침서 요구대회자료
7	여름수련회 달력사업기획 자활합숙훈련		안산민탁연대모 임구성 여름캠프	전민협 창립 대회	교사소식지 탁아정책연구 탁아소 환경과 교구 자료집
8		2차 아동관토론 회, 사진소모임 구성		여연수련회 일본교사 방한	교사소식지 (12월까지 매월발간)
9	8기 신진교육 강좌 시작	확대개특위 구성	인천시 민간보육 시설협의회 준비 위 구성 및 간담 회	일본보육국제 심포지움 참가 국민회의 발족 식, 국방비 삭 감 연대회의	구로지역 문제 행동 사례집
10	어머니 큰잔치 대선택활동 시작	3차아동관토론회 교사정치토론회 지방개특위구성	지방 어머니 큰 잔치	민주당 여성정 책토론회 참가 사대위발족 공 청회(간부수련 회) 부산 '보육을 정하는 모임' 심포지움' 발전면급식 연	

			대회의 참가	
11	사무실 개소식 총준위, 수련회 준비팀 구성		2차정치토론회 자모교육실전훈 련 과 관련실태조사 경 공동작성 전노협전야제 참석	동부「계엄놀이 자료집」, 안산「수과학 활동 자료집」
12	간부교육	4차아동관토론회 제본과 평가작업	지역위, 분과평가 인천시 민간보육 시설연합회 창립 '92 본예산 확보	사대위 예산요 구서 후보자 면담 사대위 보고대 회 여연 대선정책 기자회견

3. 활동 평가

1) 중앙분과의 개편, 지대의의 논의력 강화를 위한 구조로서 정책소위의 운영, 교사
용 소식지 발간 등 조직내 다양한 구조와 활동이 생성, 정착화되고, 지대의를 지도 중
심체로 강화해냈던 시기였다. 그 결과 중앙과 지역내의 분과활동 정착화와 이로 인한
일상활동의 안정화, 지탁연내 연합체적 결합도 및 활동력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즉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분과 및 각종 연구부서 등이 신설되어 중앙과 하부
단위간의 다양한 결합통로가 확보되는 성과를 얻고 통일적으로 마련된 조직규율이 시
범적으로 운영되어지는 한해였다. 그러나 각 구조별 활동의 내실화란 측면에서는 아직
미진함이 발견되고 있다.

지역대표나 일상적 의결기구인 지대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반적
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나, 이에 반해 지대에서 전체 조직적 과제 및 전 지역사안을
총괄하는 집중논의는 아직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법개정이후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편차를 해소하고 그간 각 지역위원회의
자생적 노력에 의존했던 바, 결합력이 미약한 몇몇 지역위원회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
민하기 위하여는 지대의를 통한 지역간 중요사안의 총화가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
이며 회장단의 역할 중에서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직내 강고한 결합력의 확보와 지도중심을 세워 나가는 새로운 기풍은 매우 고무적임에 틀림없으나 그 영역이 아직은 지탁연 단일 조직안에서만 그치고 있을 뿐 여성운동 상부단체에 대한 책임적인 참여는 아직도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활동성과에 힘입어서 여연내 탁목위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던 91년에 비하여서 부분적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즉 여연을 본 회의 상부단체로의 인정, 여연활동에 대한 공유 정도는 확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한해 여연활동의 부진함을 볼때 우리 대중의 계급성으로 여연활동을 올바르게 건인해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조직의 힘을 실은 의견 개진과 여연 사업계획서 참여 및 지탁연 사업내의 반영 강화 등 보다 책임감있는 고민과 실천활동의 조직화가 요구되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상층중심의 언대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 주체 역량 강화

(1) 92년도 사업중에서도 특히 하반기에 들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실시가 강화되었고 이후로도 정착되어질 것이 합의되는 한 해였다. 교사들의 활동조건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간부대회, 평교사 재교육, 아동관 토론회 등 연합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내용별로 차별화시킨 교육기회가 마련되고 재교육 내용의 확산, 절점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성과였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총선, 대선에서의 전선체 결합을 적극 수행해내는 과정에서 전체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일주체로서 교사들이 실천하고 단련되어지는 기회를 갖게되고, 지역내 언대들의 기초를 다지므로써, 활동가로서 자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이후 탁아운동과 민민운동의 결합 전망을 예시하는 중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중앙과 지역에서의 아동분과활동의 적극성에 힘입어 아동교육에 대한 교사들간의 중요도가 확인되었고 일상적 교육활동이 강화되고 각종 성과물들이 공유되었다. 이 결과 기존에 만연되었던 아동교육에 대한 콤플렉스가 극복되어가고 교육활동의 새로운 이념을 세워나가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되었다.

올해에 이렇듯 교사재교육의 성과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데는 책임구조의 노력과 함께 내용에 있어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사안을 풀어 나가는 것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 교사들의 역량강화가 이처럼 비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올 한해 자모 역

량 강화의 과제는 현상유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도 정확한 평가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것은 대다수 지역에서 지역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시켜야 할 지원확대투쟁의 고리를 자모역량 결집으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로써 요구대회나 어머니큰잔치가 정착화 되어가는 성과 외에는 각지역자모회 활동이 92년도 지탁연의 조직적 과제와의 통일성을 결여한채 개별화되어지는 커다란 오류를 낳게 된다.

객관적 요인으로는 최근들어 경제 불황, 중소기업 도산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공단지역 자모들의 취업구조의 변화로 소속자모들의 의식 성향변화, 탁아에 대한 절박감 저하, 심한 유동성 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분적이거나 아동지원이 실시되므로 자모들의 범투쟁 참여의 지속성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모를 바라보는 시각과 활동방안이 매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활동가로서 대중을 둘러싼 주, 객관적 조건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활동방안을 순발력 있게 내오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예: 자모유동성 심화->원인파악->신진자모교육 강화시기로 사업집중)

이러한 전 지역적인 정세 현상에도 불구하고 올 회기중 자모 조직전망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것은, 담당구조로서 설정된 중앙자모조직분과의 역할 설정의 부적절함 때문이었다. 93년에 있어 중앙분과나 지역분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대의, 정책소위 등 보다 포괄적인 단위에서의 집중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3) 자부에 대하여 그간 탁아운동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차이, 조직화 정도 차이 등이 있으나 가족잔치 형식의 어머니 대회를 전후로 하여 '자부의 보조세력화'란 측면에 합의해 내고 자부들의 적극적 활동 참여를 내오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정한 조직물로 형성된 경우는 몇개 지역 혹은 개별 단위로 그치고 있으며 아직은 모임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책으로 행사참여 추동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자원활동가 조직화의 정도는 서울, 경인지역 (서울경인지역 지역사회탁아소 자원활동가 언대회의)을 중심으로 광주, 대구, 부산 등의 지역위원회에서 자활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서울경인지역의 경우 월1회 모임의 정례화를 통해 역량안정을 가져왔으며 교육과 행사결합에 있어 전년에 비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나갔다.

그러나 각 탁아소 현장내에서의 자활가의 관리와 조직화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진한점이 드러나고 있어 전체차원에서 자원활동가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와 조직적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원요구 투쟁(개정활동의 기반마련)

올해의 지원요구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갖기도 하지만, 이보다 이후 개정투쟁의 전면화로 가는데 있어서 매개고리로서의 활용여부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 중점사업을 지원확대투쟁(특히 아동지원확대)으로 정하고 중앙과 지역의 두축으로 설정한 것은 가장 적합하였으나 이를 위한 사업수행에 있어서, 대다수 지역이 자모교육, 시의회 작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오지 못했다. 그리고 성과물을 내 온 지역의 경우도 자모들을 적극 결합해내는 대중적 요구 및 활동으로 끌어올리는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아동 지원이 실시된 이 후로는 확대투쟁의 방향에 혼란을 겪으며 활동을 지속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 모색과정에서 중앙, 지방, 각지역 개특위가 구성되는 조직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열심히 활동한 몇몇 지역에서 모범적 전형이 마련되어 타지역 확산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4) 세력확대

민간탁아소 연대사업은 '92 사업계획과 지대의 결의를 거쳐 그 유의성이 전지역적으로 합의되었고 현재 7개 지역위원회에서 실시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 통일된 활동원칙은 나오지 못하였고 그간의 활동 경험과 평가 및 연구작업을 기반하여 현재에 와서야 대상 범위 및 활동내용, 조건별 유형등 장단기적 전망을 정립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93년에 있어서도 각 지역위원회의 활동력 강화를 통해 민탁 연대의 조건마련 및 활성화가 계속 요구되므로, 개정활동과의 긴밀한 결합을 위하여는 개특위와의 인적, 구조적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탁특위 해산이후 공백상태를 마무리하고 사회복지예산확대라는 통일적 범주속에서 연대 구조를 갖게된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참여 또한 성과로서

지적되어야 한다.

하반기 부터 새롭게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벌인 사대위 활동은 사회복지예산확보 공동투쟁이나 대선관련 공동활동 등에서 보듯이 시기성을 놓쳐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진 못하였으나 '93년 대국회투쟁을 함께 수행할 든든한 세력을 얻었다는 점이 올해의 중요한 성과이며 내년이후 활동을 자극해 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대위 연대활동에 대한 내적 공유가 초기에 마련되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내부혼란이나 책임 구조 마련 등의 미진함은 오류로서 지적될 수 있으나 그 간 활동의 결과로 사대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나타나고 있다.

5) 정책생산의 강화

정책소위가 법개정활동과 관련한 정책생산의 요구를 담아낼 구조로서 제안, 신설되었다. 그러나 개특위 관련 사항만으로 그 논의의 폭을 제한하기보다는 탁아운동 전반에 걸친 정책 생산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다. 매 해 개정활동의 전망을 밝힐 수 있게끔 탁운을 둘러싼 정세분석 1~2회 및 조직내 중심사업 채택, 관련정책연구 등을 정책소위의 일상과제로 정례화 시켜내고 사이사이에 특별사안을 배치하는 운영원칙이 요구되어진다.

올해에는 특히 교육연구부와 탁아정책연구부가 조직의 요구를 모범적으로 수용해내므로써 이들 연구부서의 빠른 성장과 정착화는 물론 연구결과물의 확산을 통한 정책내용의 질적보강과 교사재교육강화의 성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었다. 향후 이들 연구부서와 내부구조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그 과제나 결과물들이 조정, 총화되어지게 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된다.

6) 총선및 대선 대책활동 강화

중앙과 지역에서 대책구조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전체 민민운동과의 과제 및 조직상의 결합도가 높아졌으며 지역에서는 이후 일상적 지역과제까지 받아안을 수 있는 연대틀을 마련해내는 성과를 얻고 있다. 또한 통일적, 정치적 사안이 부각되는 이런시기에 부문운동의 독자적 과제는 되도록 선거전반부에 부문운동을 둘러싼 연합체(지탁연-> 여연 -> 전국연합)로 모아져 요구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검증되었

다.

올 14대 대선에서 지탁언은 헌신성과 단결력을 기반으로 모범적 활동을 수행하였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오천만 민중의 꿈과 희망인 민주정부 수립의 과제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대선투쟁을 거쳐 이룩한 조직력 강화의 성과를 기반으로하여 이후 찾아올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지자체 선거, 93개정투쟁을 활발히 조직화 해낼 것을 요구받고있다. 이후 우리활동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대선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조속히 그리고 치밀하게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7) 선전 활동

뒤늦게나마 문화홍보 주체가 꾸러지고 내부소식지가 꾸준히 발간되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획단위에 내부의견 수립의 정도나 선전물의 확산정도가 파악되어지는 통로가 없어 선전지 자체의 역할 수행정도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대외 선전활동에 있어서는 요구대회 선전물과 연대활동 과정에서 마련된 선전물(여연 대선 선전물, 사대위 공청회 및 요구대회선전물) 등이 연대활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나타났다. 예년에 비해 선전물의 전문성이 많이 강조되고 강화되어 효과에 있어서 두드러지나 지속적인 강화가 요구된다.

이 후로는 민탁연대 등의 활동을 예상할 때 대중적 대외선전물의 위상을 갖는 '우리네 아이들'의 재발간이 요청되나 현재 역량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행정단위에서의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내기 위한 지역선전활동(지역신문 등 합법적 선전물 활용 포함)의 강화가 요구된다.

92년도 지역대표자회의 활동평가서

(서울 경인지역대표자회의)

1. 주요 일정

1/30 92년 1회 지대의

신구 회장단, 신구 지역대표자 이.취임식,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논의
회칙 검토 및 인준, 활동비 조정건, 92년 동계수련회 평가, 정책소위 구성, 92년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 논의

2/13 사업계획 집중 논의, 총선 대응 지침서, 간부훈련 제안검토

2/27 개특위 사업 및 구조에 관한 논의, 보육위원회 구성문제, 어린이날 행사 및 교사재교육용 자료집 검토

3/19 총선 대응활동점검, 개특위사업 논의(지침서분석, 간부대회 건)

4/2 총선대책활동평가, 간부대회 평가, 정책소위 구성 건, 보사부 요구서 검토, 번 미양교사 대책 건, 김 보은사건 대책

4/16 총선 활동 규합과 평가, 보사부 건의서 검토, 자모조직분과 활동결과물 자료설명, 소식지팀 구성, 실태조사건

5/7 어린이날 행사, 개특위 제안검토

5/24 요구대회 건

6/4 어린이날 행사 총평, 요구대회 준비, 교사용소식지 평가

6/18 요구대회 총검토, 전교조 협조건, 수련회 준비위구성 및 개괄논의

7/2 요구대회 평가, 수련회 기획안 검토, 전빈협 총회 및 창립, 달력제작

7/16 수련회 일정 검토, 상반기 각 지역위 활동평가, 하반기 개정활동 일정 논의, 나눔의 집에 관한 정책소위 제안검토

7/23 임시지대의 하계수련회 준비 최종검토, 각 지역 상반기 활동평가및 하반기 활동계획논의, 하반기 개정활동 논의, 탁아소 설문지 분석, 어머니대회 준비 건.

8/20 하반기 첫회의 하계수련대회 평가 및 총괄평가 인준, 어머니큰잔치 준비, 대선 준비, 사대위 연대모임, 개특위활동 및 구조개편 논의

8/27 하계수련대회 총괄평가 인준, 하반기사업 인준, 어머니큰잔치 기획서 인준, 대선 대책위원 선정.

9/17 국민회의 참여 건

10/1 대선 본부 창설, 어머니 큰잔치 총점검, 사대위 공청회 및 발족식 평가
대선정책 질의서 검토, 민주당의 법개정안에 대한 대응여부, 달력 판매건

10/29 어머니 큰잔치 지역평가, 대선본부활동 및 공지사향, 지역여성조직화에
관하여(전여노 활동과 관련하여), 재특위 제안서 처리사항, 여언 특별
사업

11/5 어머니 큰잔치 총평가서 인준, 대선활동, 개특위 제안사항 검토, 총회 및
수련회 일정 검토 및 준비위원 구성, 간부합숙훈련

11/19 대선활동, 이전식, 총회 및 수련회 준비위구성, 재정사업 및 담당자인준

12/3 간부수련회 내용검토, 총회 및 수련회 논의, 사무국장 및 보궐선거에 관
한 논의

12/17 총회 및 수련회 검토, 사무국장 인준, 재정사업에 관한 결정, 보궐선거
지대의 평가, 지역활동 평가제출.

12/24 임시지대의 총회 및 수련회 총검토, 정책소위 자격에 관한 건

2. 평가

작년도 활동 평가속에서 나타난 조직강화의 주요한 방안의 하나로 지탁연의 중심적
책임구조이자 논의구조인 지대의의 강화가 주목되었다. 이에 따라 지대의의 논의력 강
화를 위하여 정책소위원회가 결성되고 별도로 정책연구부 신설이 보조적으로 만들어졌
다. 지대의 활동력 강화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펼친 결과 일차적으로 지대의의 조직
내 위상이 어느정도 구축되는 한 해였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수행에 따른
논의력 및 지도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강화가 내년도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
을 것이다. 여건상 지대의의 올 해 활동평가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은 내년 초의 수련회(지대의, 개특위 합동수련회)를 통해 정리될 것
이며, 그로 인해 본 평가서는 간략한 평가이다.

올 해 지탁연 조직 및 사업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모든 지대의원들이 성실하고 열
성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며 몇가지
평가 및 대안을 점검해 보겠다.

1) 전반적 활동 평가

예년에 비해 지대의 활동의 중요도가 넓게 인식되면서 보다 책임있는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였다. 그러나 아직도 지대의의 독자적 임무 및 책임사항이 명
료하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 즉 지대의원과 각 분과 책임간의 역
할 분담이 명확히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장의 역할이 사무적인 일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주로 보고전달 기능) 따라
서 지역을 보다 책임적으로 운영해내며 특히 지역교사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어야 한
다. 특히 민탁연대 등 주요사업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

지대의원의 위치가 안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장의 고민이 곧 각 지역내
교사의 고민으로 깊숙히 이어지지 못한 채 괴리되는 경향이 남아있다. 따라서 지대의
는 중앙활동과 지역활동간의 연결속에서 적절한 조정이나 대응이 필요한 만큼 자발적
주체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각 탁아소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중앙의 요구가 지역활동으로 곧바로 받
아내어 활동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전히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
이며 이의 차이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지대의원의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하기위해 총회에서 정확한 인준이 요구되고 활동강
화를 위한 수련회 등 교육기회가 필요한데 특히 연초에 이런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지역장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장치가 필요하다.

2) 논의력

지대의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탁연 활동 전반에 대한 대안을 내오고 상황을
판단하는 논의력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 역할이 가장 취약점으로 나타난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에 대한 부족분이 많이 극복되었다고 보며 이는 지대의
의 고유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한시적 소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가능했다. 그러나 아직은
미진하며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집중 강화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역할강화를
위한 교육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대의 활동중에서 지역활동 점검 및 지역편차를 줄여나가는 활동이 가장 미진한 것
으로 반성하게 되는데 이는 11월 지대의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 회의를 중앙사업
논의와 지역사업 중점논의로 배분하기로 모아졌기에 내년도에는 보장되리라 본다. 이
는 특히 개정사업이 중앙과 지역의 양측으로 전개됨에 따라 심각한 고민에 있으므로
각 지역의 활동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꼭 해결되어야 한다.

내년도의 사업을 바라보면 지대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 해를 성

과를 토대로 힘찬 활동에 박차를 가하자.

(지방 지역대표자회의)

1. 주요 일정

1/29 지역보고, 대표자인준에 대신한 인사와 소개

동계수련회 평가, 92년 사업계획 초안 보고, 지방지대의 역할과 위상 및 전망 논의, 92년 보사부 보육사업 계획서 검토, 정책소위에 지방대표 참여키로 함.

2/18 1월에 제출한 사업방향과 사업계획 초안 집중 논의, 총선대응활동-지침서 검토, 실태조사 기획안 검토, 간부훈련 제안서 검토

3/28 간부대회 참여

지방 교사교육건, 지원확대요구투쟁, 군산지역위원회 분화에 대한 논의.

4/21 총선대응활동 규합과 평가, 보사부 건의서 내용검토와 쟁점사항 논의, 간부대회 평가 및 논의

대구지역대표 바뀜

5/19 요구대회에 대하여, 지방의 신진교사교육강화에 대하여 논의.

6/16 탁아운동론 논의 경과 보고, 요구대회 준비, 전반기 참여 논의, 하계수련회 준비에 대하여

마산 지역대표 바뀜

7/18 지역대표 단합대회

수련회 준비, 상반기 평가 작업 준비, 요구대회 평가

8/25 하계수련회 평가와 총괄 평가서 인준, 어머니 큰잔치 준비에 대해, 대선준비, 사회복지관련단체 연대모임에 대하여, 하반기 개정활동에 대하여

9/22 어머니 큰잔치 지역준비 점검, 지방개특위 구성을 논의, 민간탁아연대 제안서 검토.

11/10 대선투쟁의 지역활동에 대하여, 개특위 제안서 건에 대하여, 간부합숙 훈련, 총회 및 동계수련회 준비에 대하여

2) 평가

지방지역의 경우 92년도에 들어서 지방지역대표자회의가 월1회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하반기에 들어서 지방개특위를 구성하고 지방아동분과회의가 정착되는 등의 성과를 가졌다.

1992년 지방지대의 하반기 활동평가에서는 지난 91년의 평가와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1. 지대의 대표의 지도력 강화와 교양과 회의를 겸한 대표자회의로 자리해야 함이 지적되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실무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격월로 회의와 보고, 교양을 수행하는 방안, 연 초에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즉 서울경인 또는 중앙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보고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대안 마련에 있어 부족했다는 평이다.

2. 위 내용과 연결이 되어 제기되었던 것은 지방지대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자체의 고유한 논의안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보고와 전달이 중심이 되다보니 회의참여에 있어 수동적, 소극적인 모습을 갖게 되며 회의운영에 있어서 느슨하였다.

지방지역의 현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이의 전제는 주요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차원의 문제가 미리 준비되는 실무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회장, 간사가 안건을 가지고 회의에 내려오는 것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원칙은 있으나 이를 수행할 역량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조건, 역량등)

지난 92년의 정기적인 지방회의를 통해 지방의 의지가 어느정도 드러났으며 자리가 잡혀간다고 평가되었다. 경인의 모범을 어느 정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따라 배우고 지역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내부조직력의 강화가 92년의 목표로써 제기되고 93년의 실제화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각 지방별로 볼때 지역 자체의 주체적인 자세, 현실적인 역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과 서울경인의 편차 극복방안이 나와야 한다. 즉 단지지방이 알아서 극복하는 자생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방내 간사를 두던가 지방담당 간사를 두던가 사무국내에서 역분하여 기존 간사나 지방고민을 집중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지역대표는 지역간사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나타나는 지역활동의 한계는 개인적 한계나 자질의 부족이 아니다.

지역대표 활동에 대한 지역내 배려(적어도 반상근)와 지역위의 분위기 조성, 지역대표의 준비도 있어야 한다.

명목적인 중앙 집중적인 사업만이 아니라 지역별 사업의 구현과 창조적 방안을 고민해야, 전국단위의 사업을 고민하면서 주체적으로 해도 중앙의 실체가 가깝게 다가와야 한다. 그리고 연사업을 배치하면서 일의 조절이 필요하다.

지방개특위와의 관계에 있어 독자적 임무, 권한, 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분들 **

- * 전체 진행 : 최현숙 (회장)
- * 동계수련대회 준비위원회 : 양은희 (부회장)
 - 서울경인지대의 : 김선자(북부) 김연희(중부) 김혜은(봉천) 정성희(구로)
 - 최순복(부천) 김동주 (인천) 이기원(수원)
 - 지방지대의 : 권오원 (대전)
- * 총회 준비위원회 : 정희연 (부회장) 최선희 (사무국장)
 - 서울경인지대의 : 조용찬 (동부) 이은애 (안산) 김상현 (성남)
- * 농이분과 : 이정년 (대전) 이주영(수원) 최숙자 (인천) 고영미 (안산)
- * 노래분과 : 문은홍(구로) 형미애(구로) 권경아(인천) 윤정희(인천) 문병은(중부)
- * 사무국원들께 여러분이 준비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교사조직분과 (92년 평가와 93년 계획)

1. 중앙 교사조직 분과의 위상과 역할

1) 중앙교사조직분과는 각 지역의 교사조직분과장들의 모임이다.

현재 중앙 교사조직분과에는 인천, 안산, 구로와 하반기에 결합한 중부가 참여하였다.

모든 지역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을 교류하고 활동 전개를 위한 공유작업이 되어지지 못하고 중앙 차원의 활동에 치중하여 활동이 전개되어졌다. 이는 참여 의지의 부족이라기 보다 각 지역의 열악한 상황에 따른것이라 보여지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의 참여를 원칙으로하되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에까지 논의가 확대 전달 되도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교사간 단결을 도모하고 교사조직의 강화를 위한 교육, 선전, 문화 활동등 제반 활동을 한다.

교사들의 활동가적 의식 고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어지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대선시기 속에서 교사들의 의식파악, 고양을 위하여 정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대선이라는 특수한 시기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 사업 목표

교사들의 의식 정도 파악과 함양 그리고 그를 통한 활동 역량 강화

상반기에는 설문조사 분석과 간부 교육등을 통해 조직 역량, 의식화 정도를 파악하고 조직의 기풍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선 투쟁을 겨냥한 교사정치토론회를 통해서 교사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활동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여진다.

3. 92년 사업 계획과 평가

1) 탁아소와 교사개인에 대한 실태조사

상반기에 실시한 교사개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은 수련회를 통해 품성론에 대한

고민과 토론으로 활용되었지만 탁아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태 분석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시 되어지며 오히려 새로운 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설문지 분석과정에 있어서 현대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본다.

2) 중간 간부대회의 강화

간부들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 제기 속에서 3월에 간부대회를 가졌으며 12월 이 에 따른 간부 교육이 실시 되었다.

각 지역의 상황이 교사들의 의식화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 할때 앞으로 간부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를 위한 원칙과 전반적인 틀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교사 교육과정의 내용 및 체계 마련과 실행

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강좌 자료집에 첨가하고 일반적인 사회과학 교육과정은 자료집 뒷부분에 첨가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교육강좌 자료집이 이 후에는 탁아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정리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교사의 재생산 구조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마련

자원활동가와 여대협, 유아교육관련 학과등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의 내용을 교육하고 선전,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교사의 재생산구조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이는 분과 차원에서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탁언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 보여진다.

5) 교사조직에 대한 지역의 내용과 방도를 모으고 보다 내용성있는 교사교육과 방식 마련

인원이 전지역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전지역에 통일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으며 중앙 차원의 활동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지역의 요구와 내용을 수련하지 못하고 중앙 차원의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6) 분과원이 없는 지역의 교사조직에 대한 상황 점검과 보강

상, 하반기에 4명 정도의 분과장이 활동을 해왔는데 이는 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후에도 모든 지역의 참여는 어려우리라 보여진다.

4. 총괄 평가

상반기에는 교사개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교사들의 고민과 의식화정도를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로 대선관련 활동을 전개하였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지역의 상황 점검과 지역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으며 이는 대선이라는 시기속에서 교사정치토론회등 대선활동에 치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교사정치토론회의 실시는 정치적 문제를 교사들이 고민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1년의 활동을 통해 교사조직의 필요성이 각 지역에 인식되어지고 교사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5. 활동 일지

2월: 교사조직분과 위상 및 역할, 사업방향및 사업내용 논의와 결의, 중간 간부대회 기획과 논의

3월: 중간간부대회 준비, 교사설문지 통계작성

4월: 중간간부대회 평가와 교사조직의 단결을 위한 방안 논의
교사조직의 단결을 위한 방안중 탁아소내 갈등상황에 대한 사례 수집및 분석

5월: 줌성론 자체 세미나준비와 지역상황 논의

6월: 줌성론 자체 세미나와 하계수련회 내용 논의

7월: 교사 개인 설문지 분석과 상반기 평가

8월: 하반기 일정 점검, 정치 토론회 기획, 실태조사 제안 받음

9월: 정치 토론회 자료준비, 일정검토및 분석 준비

대선관련 자료 취합, 설문지 분석작업 역분

10월: 정치토론회를 위한 세미나, 대선관련 1,2차 토론회 기획

1차 토론회 프로그램 확정과 토론주제 선정

설문지 분석 작업

1차 정치토론회 실시

설문지 분석 마무리, 지역보고

- 11월: 1차 정치토론회 평가, 2차 정치토론회 발제 자료 정리, 교사 교육과정
준비논의, 설문지 분석 최종 검토
정치토론회 발제문 검토
2차 정치토론회 실시
토론회 평가와 커리작성을 위한 분담, 교육강좌 내용 보강
12월: 92년 사업 평가 작업과 교육과정 마무리

6. 93년 활동 계획

- 1) 교사 개인카드 작성
- 2) 실태분석에 따른 교사들의 활동원칙 작성
- 3) 교사 교육 방식을 정리화시키는 방안
- 4) 교사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서 지역의 활용 방안
- 5) 간부층이 강화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자모조직분과 (92년 평가와 93년 계획)

1. 자모조직분과의 위상과 역할

1) 중앙의 자모조직분과는 각 지역의 자모조직분과장들의 모임이다.

상반기에는 부천, 구로, 안산, 북부가 결합하여 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천, 구로, 안산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2) 지역의 자모조직을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논의와 교육 그리고 실천활동을 한다.

지역의 자모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모조직 전망에 대한 논의와 지역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자모조직분과 활동 목표

자모조직의 전망 속에서 지역의 자모조직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자모조직분과 활동 내용

- 1) 자모회 실태 설문조사와 내용분석
- 2) 자모조직 강화를 위한 각 지역 활동내용 수립과 자료집 발간
- 3) 자모회 프로그램과 내용 검토
- 4) 어머니 대회 준비팀으로 확대 결합
- 5) 대선 정국 속에서 자모교육 전담반으로 활동

4. 활동 평가

1) 상반기에 실시했던 “자모회 실태 설문조사”와 분석 그리고 가정방문, 자모 상담, 소모임에 대한 자료수집과 논의를 거친 자료집 발간은 각 지역의 자모조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자모조직전망에 대하여

근래 2~3년 사이에 자모조직화 사업과 전망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제기가 되어지면서도 조직의 전망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모조직분과가 지역의 요구와 조직적 전망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적 상황속에서 자모조직분과가 지역의 요구와 조직화에 필요한 실천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때 자모조직전망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고민할 구조가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3) 하반기 활동은 주로 어머니대회 준비모임과 대선관련 자모교육전담반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자모조직분과 고유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각 지역과 중앙의 상황속에서 행사준비모임과 자모조직분과 모임을 따로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존재하리라 보고 이에따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중앙의 자모조직분과 모임이 구성되고 중앙 활동에 집중되면서 각 지역의 자모사업에 대한 활발한 활동 전개와 모임 구성이 올바르게 전개되지 못하고 중앙 모임에서도 지역 활동에 대한 점검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5. 자모조직분과 활동 일지

1월: 동계수련회 기간동안 『자모회 실태 설문조사』

2월: 설문조사 내용 분석

3월: 『가정방문』 논의와 자료화, 『자모와의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논의

4월: 『상담』 논의 마무리후 자료화, 『소모임 사례에 대한 분석』 논의

5월: 『소모임』 논의 마무리 후 자료화, 『자모회 임원 교육』에 대한 논의

6월: 자모회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7월: 상반기 활동 평가

8월~10월 중순: 어머니 큰잔치 준비 위원회로 확대 결합

11월~12월: 대선 자모교육전담반으로 확대 결합

6. 93년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

1) 중앙과 각지역의 상황이 다소 힘들더라도 자모조직분과의 지속적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중앙에서의 모임과 논의는 계속 진행하되 올해 수행하지 못한 지역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한다.

2) 하반기 사업에서 예상되어지는 어머니 큰잔치등 행사에는 중앙과 지역의 조건을 감안하여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조직 전망이라는 중,장기적 논의의 필요와 지역의 요구 수렴이라는 현실적 과제속에서 부담감만 가중되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전망에 대한 논의를 받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역에서 자모조직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수렴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자모교육전담반 활동 평가〉

1. 자모교육전담반 구성의 필요성

민주정부 수립과 정권교체라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 교사와 자모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내용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할 구조의 마련이 제기되면서 자모조직분과에 나오지 않는 지역이 보강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모교육전담반의 활동은 대선 투쟁의 중요성을 교사들 스스로 각인하는 장으로써의 역할과 자모조직 활동의 필요성과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었다고 본다.

활동의 중심은 지역자모조직 활동에 두었지만 이를 통해 교사들 스스로 대선투쟁 활동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와 내용성을 담보 하였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자료만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함께 고민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속에서 좀더 실천적인 내용과 활동력을 만들어 나갔다고 본다.

2. 모임 방식과 횟수

격주를 원칙으로 했지만 금박한 시기성 속에서 거의 매주 화요일날 모임이 진행되었다.

3. 활동 내용

- 1) 제2차 교사정치 토론회때 “선거 대책 활동의 대중적 전개를 위하여”라는 발제 준비와 발표
- 2) 자모 교육 실천 훈련(워크샷) 실시: 자모회 진행방식과 일상적 활동에 대해
- 3) 각 지역 활동 보고와 정보 교류
- 4) 지역 자모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작, 배포
- 5) 각종 홍보물 수거와 대선 관련 선전물 배포

4. 평가

1) 토론회

- 지탁언이 입장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다.
- 지역의 많은 교사들이 개인적인 입장, 고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현 정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중앙에서 함께 모여 고민하고 교육하는 장이 교사들에게 시기의 절박성과 실천력을 담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2) 자모교육실전문연(워크샷)

- 교사들이 이런 교육의 장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자모회 등 자모조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자모회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자모교육방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
-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지역에 전달되면서 좀더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수 있었다.

3) 총괄 평가

- 총선시기와 비교해서 볼때 대선시기는 좀더 고민이 체계화, 구체화 되어지면서 실천력이 고양되었다고 보여지고 중앙에서의 교육이 교사 개개인에게 활동을 유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 자모교육전담반이 확대되어 진행되었는데 이런구조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이후 자모조직분과 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 지역이나 개탁아소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각 지역이 함께 모여 논의 하면서 내용성을 담보하고 실천력을 고양 시켰다.
- 이후에는 지역과 중앙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으면 바람직 하겠다.

5. 활동 일시

10월 27일: 자모조직분과가 대선시기 자모교육전담반으로 편성되는 필요성 인식, 2차 교사정치토론회 논의

11월 3일: 워크샷에 대해 대선본부에서 제안 받음

2차 정치토론회 발제문 준비와 워크샷에 대한 논의
워크샷을 정치토론회때 함께하기로 결정
각종 자료와 신문스크랩 모으기로 결정

11월 10일: 2차 정치토론회 준비 마무리

11월 18일 워크샷을 지역의 요구와 필요성 제기에 따라 다시하기로 결정

11월 11일: 2차 정치토론회 실시

11월 17일: 워크샷 진행 중점 논의와 마무리

11월 18일: 자모실전문연(워크샷) 실시

11월 24일: 각지역 대선 관련 활동 보고

유인물 배포주간 설정(12월 7~12일)

문화홍보부 (93년 사업계획)

92년의 경우 조직내부적으로 문화홍보를 전달할 주체를 제대로 세울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부서평가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내년도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을 밝히는 바이다.

1. 93년도 사업 목표

- 1) 93년 개정투쟁의 선전을 강화해 나간다.
- 2) 지탁언의 사업 및 행사를 효과적으로 선전해 낸다.
- 3) 지탁언 내 문화역량을 소모임화하여 정착시켜낸다.
- 4) 사업내용을 자료화해내고 책으로 발간한다.

2. 사업내용

- 1) '함께가는길' 교사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한다. 이를 위해서는 편집위원의 보강이 요청되며 기획력 강화, 편집실무력이 안정되어야 한다.
- 2)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리네 아이들'을 책으로 발간한다.
- 3) 상반기 어린이 날 행사와 하반기 어머니큰잔치를 담당분과와 결합하여 준비한다.
- 4) 각 부서의 행사 및 지탁언의 일상활동의 홍보와 자료정리를 한다.
- 5) 지탁언 내 문화소모임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놀이분과 및 노래분과를 안정화하고 이를 위한 정기적 모임과 전문적 기능을 가질 수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분과(92년 활동평가 및 93년 계획)

< 분과 활동 >

상반기의 평가속에서 나온 하반기의 목표는 일상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과 분과장의 지역 활동 강화였다. 즉, 일상 아동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안을 풍부하게 하는 것과 분과장의 지역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 활동 강화였다.

1. 일상 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

1) 활동 실제 교류시간 정례화

(1) 회의순에 안건토의 외에 교육 실제 활동 교류시간을 두어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도 자체로서도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나 원래의 의도와 같이 내실있게 진행되지는 못한 미진한 점이 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첫째는, 탁아소의 일상 교육활동에서 교류할만한 것을 찾지 못한 이유이고 둘째는, 교류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분과장이 나오는 개별 탁아소 것만을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원래 의도한 전체적인 교류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의미가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실제 교류는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교육에 있어서 양적인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효한 활동이므로 93년의 활동에서 받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2) 일정 기간을 두고 작업하려 했던 부문별 자료모음 활동

지방을 중심으로 서울 경인지역과 함께 시도했던 문자교육,수교육,특기 교육에 대한 모음은 그성과를 올해에 볼 수 없었다. 이것은 활동의 게으름보다는 한계속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 각 지역과 분과활동의 강화로 적절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야 하겠다.

(3) 탁아소 아동 행사 지원

여름 캠프, 방학, 제물잔치 등의 행사에 미리 분과모임에서 자료를 마련하여 행사 지침서를 만들려고 한 계획이 있었다. 이것이 이번해에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시기가 늦고 활동 내용이 풍부하지 못해 실제로 도움이 되기는 어려웠다. 비록 올해의 활동이 어려웠기는 하나 올해의 활동을 축적하여 '93부터는 이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분과장 활동 강화

상반기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의 아동교육 활동을 조직적으로 이끄는 데는 지금 분과장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하고 활동 방향을 생산하는 것과 지역에서 올바른 수업과 검증을 통해 활동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적인 뒷받침이 힘든 경우에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활동의 비약적인 강화를 보기는 힘들었지만 상반기의 활동에 자신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반기 활동에 임해 각 지역에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 분과구조 강화

지역의 분과구조를 강화한다는 것은 착실한 내용생산과 지역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설득작업을 통해 활동을 보장받고 분과에서 목표로하는 내용을 강화해내며 결국은 지역 활동 강화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지역의 활동 강화라는 의미에서 지역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분과 활동의 정착화를 통해 구조의 안정화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분과는 각 지역에서 일상활동의 내용성 확보와 양적 확대를 통해 양, 질적으로 발전을 꾀했다고 할 수 있다.

→ 여러가지 지역 활동의 예 : 일상 교육활동 강화(계획안 작성, 교사순환제, 교구순환제, 자료집 발간, 학습, 교구 제작, 부모교육, 교사재교육 등)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를 남는 것은 사고를 넓히는 것으로서 단지 지탁언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과활동이 아니라 전체 탁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탁아운동의 내용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 기반을 확대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산지역의 민탁교사 연대와 2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 부모교실

< 교육 연구부 >

1. 교육 철학 세미나 - * 각 토론회 평가서 참조

교육분과와의 연계, 내용 생산 집중을 통한 아동관 토론회는 지탁언의 교사재교육, 아동관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자리로 자리를 잡았다. 이의 시의적절성과 필요성은 4차의 토론회 과정을 통해 검증되었고 내년에는 좀더 알찬 내용으로 해나갈것이 요구된다.

2. 교육 철학 학습

- 정례화되지 않은 과정으로 자체 학습을 했다. 여러가지 책들을 보면서 아동관 토론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연구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아직 하나의 성과물을 내기는 힘든 것이 있었다.

+++ 올해의 활동을 통해 지탁언의 연구부서로서 교육연구부는 적절한 연구내용과 조직내 아동교육분과와의 연계를 통해 그것에 요구되는 일들을 알차게 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연구활동의 강화와 아동교육내용의 지탁언 외의 조직또는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한 대외활동이 필요하다.

< 사진소모임 >

92년 어린이날 행사 이후로 어린이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 소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하반기에 사진소모임 활동이 진행되었다.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진소모임 활동은 어머니 큰잔치 행사사진찍기등의 작은 실천활동을 했다. 원래 일정은 12월까지 10회 정도의 강습을 통해 93년도에 하나의 실천활동을 잡아(예를들면 교육 사진 찍기 등) 지속시키는 것인데 지금은 일정이 뒤로 미뤄져 있다.

< 8기 탁아교사를 위한 교육강좌 >

* 일시 : 1992.9.15~12.21(매주 월, 금), 오후6시~9시

* 장소 : 지탁언 교육실

* 대상 : 현재 교사중 교육강좌를 안받은 사람

* 목표

1) 교사로서 올바른 교육과 탁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마음 자세를 가진다.

2) 교사로서 필요한 아동/자모/탁운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앞으로 전문성을 습득하여 앞으로 전문성을 습득하도록 한다.

3) 탁아운동의 일 주체로서 지탁언이라는 조직의 활동가로 충실히 활동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 성격 : 내부 교사 중심의 성격을 지니며 성격에 따른 내용이 크게 변동되는 것 없이 이번 강좌는 신진이 중심될 것이고 9기에는 신, 중진 모두 받도록 한다.

* 내용 : 아동교육/탁아운동론/탁아소 운영

* 평가

1) 위상 - 일차적인 의미로 지탁언의 탁아교사를 위한 교육강좌로 자리잡았으며 일반 지원자중 대부분이 교사로 영입되어 탁아운동의 저변확대와 타조직에의 지원 방편으로 자리잡히고 있다.

현재 교육강좌가 갖는 위상은 지탁언 내적인 것으로 되지만 앞으로는 교사의 자격 문제, 수급문제와 관련되어 다른 모양새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것은 지탁언 전체의 논의와 합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앞으로 이에대한 가능성 모색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내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아동교육 내용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좋았으나 깊이있게 들어가질 못했다. 현장 교사의 강의가 더 생생했다는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후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3) 운영 -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토론이나 강의후 개인적 친목 등을 거의 하지 못했다. 지역 또는 각 탁아소 전학 등의 요구가 나타났고 강의 시간이 저녁시간이므로 간식해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외에 시범탁아소운영등의 계획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아동교육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서 내년에는 정확히 그 추진계획의 세부사항을 잡아 실천해나가야 한다.

1년 아동교육분과 활동 총평가

(상반기평가서, 아동관토론회평가서, 어린이날 행사 평가서 참조)

1. 아동교육분과의 위상과 역할

탁아운동에 있어서 아동교육활동은 일상적 사안으로서 또한 운동의 역량을 키워나가 가고 제반 관련된 주제들을 묶어세우는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교육분과의 내용성을 채우는 것과 그 자리를 정확히 잡아나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아동분과의 위상은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으며 올해의 활동을 통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축적되고 보여진다. 이후로는 '93년의 사업을 통해 92년을 통해 밝혀진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실천활동을 통해 세워내는 것이 요구된다.

2. 목표

- 1) 각 지역내용의 교류와 확산을 통해 아동교육의 내용을 풍부히 한다.
- 2) 아동교육의 질을 높인다.
- 3) 지역 분과를 강화한다. -조직체계와 내용상의 자리매김을 통해

이러한 목표설정은 1년의 활동을 짜임새있게 구성해나가도록 했으며 1년의 활동을 통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도 이러한 목표의 기초 아래서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활동 일지 - 전체 활동 속에 나와있으므로 생략

4. 활동 총괄

1년의 활동을 통해 계승해야 할 측면(93년의 계획에 반영될 것)을 중심으로 평가.

1) 일상 교육 교류활동은 올해에 정례적으로 되어졌으나 이것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힘들었다. 이 활동은 우리 교사들의 일상 아동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후에는 정례적인 활동의 교류와 공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상 교류활동을 정례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합의되는 활동의 교류와 나온 활동을 분과장이 정확하게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일상 활동 지원

거의 모든 탁아소에서 이루어지는 방학, 여름캠프, 재롱잔치, 어린이날, 졸업식, 생일잔치 등을 분과모임에서 미리 논의하고 지침서를 만들기로 했으나 시기가 늦는 등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는 올해활동의 한계로서 올해에 축적된 자료 등으로 '93년에는 정례화하기로 했다.

3) 신진 교육

탁아교사가 될 수 있는 통로의 변경으로 지탁연의 신진교육강좌의 위상을 8기부터 변화시켰다. 이는 이후로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위상의 변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분과의 평가만으로는 힘들고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속에서 나와야 할 부분이다.

신진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교육자료집 발간이 논의되었는데 이것이 발간되는 것과 더불어 지역, 중앙에서 묶어서 해나가야 할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재교육

아동관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지역의 교사재교육은 올해를 통해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업중의 하나이며 올해에 발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성과를 계승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 이는 재교육을 준비하는 주체의 강화와 연구활동의 심화로서 가능하다.

5) 연구 활동

교육연구부의 연구활동이 있었다. 이는 교사교육뿐 아니라 제도에서의 대안마련등의 과제가 있는데 올해는 재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내년에는 개정활동등을 바라보면서 탁아제도의 대안마련등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강화가 필요한데 연구부원의 증원과 짜임새있는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6) 어린이날 행사

올해의 어린이날 행사는 일찍부터(2월) 그 준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치를 것인가, 중앙에서 치를 것인가의 논의를 1달을 끌면서 혼선이 있었다. 어린이날 행사는 지탁연 행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직까지 지역 역량으로 지역적인 큰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면 중앙에서 각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 * 평가서 참조

7) 각 탁아소 특성별 교사모임 필요성 - 일단 영아 탁아소

92년의 활동속에서 영아탁아소 교사들의 특수성과 그에 기반한 활동과 모임이 제기되었다. 이는 각 교사의 상황을 보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나 중앙 활동에서 역량의 한계로 받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모임을 해온 것은 역량의 한계를 타할 상황이 아니라 역량을 배분해야 할 상황이므로 93년에는 이 모임을 받아 해나가야 할것이다.

8) 지역 분과 활동 - 평가서를 낸 지역 실음

(1) 인천 지역

ㄱ. 목표 - 분과원이 작년과 연결되지 않아서 목표설정이 어려웠다. 회의 순서가 정례화되었고 분과원의 단합이 잘 되었다.

ㄴ. 인탁위 공동행사 - 어린이날 운동회, 어린이 여름 캠프

ㄷ. 사업 내용

ㄱ) 교사 교육 - 5월 월례회의:음률지도(아이들이 부르는 노래1)

11월 월례회의:좋은 놀이는 노동의 준비이다.

매월 월례회의:아동노래 또는 율동

ㄴ) 신진 교사 교육 - 3,4회 교사의 역할과 자세

ㄷ) 수련회 준비 - 지탁연:환경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인탁위:노래극(코끼리의 코)

ㄹ) 실태조사 - 평가:내용성의 미숙으로 요구도 파악이 어려웠고 수거가 잘 안되었으나 내년 교육분과 활동에 참고가 될듯하다.

ㅁ) 유아교육 철학 정립을 위한 자체 세미나 - 참고도서: '아이는 길을 묻는 손님이다.', '미운 아이 떡하나 더주고'

ㄴ) 자료집 - '영아탁아 교육 활동에 대한 일 지침'

'3세아 월별 특징 및 월별 교육 일정표'

-> 평가와 완성을 계획했으나 실행이 안됨

==> 평가

- 전체교사가 준비하지 못했다.

- 교육내용의 확실한 전달을 위해서 모임때마다 반복이 필요하다.

- 외래 강사의 초빙이 분과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ㄴ. 분과원의 구성과 역할

-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교육에 대한 각 집의 상황교류의 통로가 없음

- 내용 생산과 전체 교사의 재교육이 주는 부담이 큼

- 분과의 방향을 잡는데 힘들었다.

- 유아분과는 전공자들의 구성으로 교육분과에 대한 요구도 파악이 힘들

ㄷ. 영아분과 평가

- 지탁연에서 영아탁아의 독자적 입지가 필요하다.(토론회,수련회 등에서)

- 수도권 영아탁아모임에 2명 이상씩 참가하고 중앙에서 영아탁아모임을 공개적으로 받아냈으면 한다.

- 영아탁아에서 대상 연령을 36개월 내지 48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영아는 유아들과는 차별성이 있으므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 각집당 1인 이상씩은 꼭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 총평 >

분과원의 개개인 역량은 뛰어났으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해 역량 발휘가 어려웠다. 하반기에 접어들어 각 집의 상황이나 행사등에 밀려 열과 성의가 떨어졌다.

< 93년의 방향 >

* 구성 - 각 집에서 아동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역할 배정으로 각 집당 1인 이상은 꼭 아동교육분과에 결합

* 목표 - 분과원의 단합

- 92년의 활동을 토대로 내용 생산에 주력

- 분과원을 포함한 전체 교사의 재교육

* 자세 - 전공보다는 열의로 분과원의 책임있는 기본 자세가 요구된다.

(2) 수원 지역

★ 평가 기초 - 초기에 3개탁아소에 한곳이 없어지고 2탁아소가 되면서 이전의 활발했던 논의구조에서 친목도모와 점차적으로 교육철학과 교육실제를 교류하기로 했었다. 이후에 아동교육에 대한 교사재교육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기로 함.

★ 년초 계획

- 연간 공동 교육계획안 짜기, 공동 야외수업월1회, 「노래자료집내기」,
- 아동교육에 대한 공동 자모교육
- 교재교구 교환
- 분과모임 정착화와 활성화, 분과논의 전체 교사에 확산
- 교사재교육(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 평가

ㄱ. 연간 공동교육계획안 짜기, 공동야외수업, 「노래자료집」

ㄱ) 연간 공동계획안을 짜면서 1년의 주제의 체계를 잡을 수 있었고 공동야외수업을 월1회씩 가지면서 아이들끼리도 다른 놀이방 친구들과 교류를 하므로 사회성이 길러지고 교사도 서로 놀이방의 상태나 상대방 교사의 아동지도 방법을 보면서 배우는 계기가 된다.

ㄴ) 하지만 공동계획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주마다 만나야 하고 계획안을 내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만나므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할때 충분한 준비없이 만나곤 했다.

ㄷ) 계획안에 맞추어서 노래자료집을 내려 했으나 역시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었기때문에 미루다가 내지 못하고 다음해에 다시 내려 한다.

ㄴ. 교재 교구 교환

활발히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동화나 그림의 것을 교환하면서 교육내용이 풍부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ㄷ. 분과모임의 정착화 및 활성화와 분과 논의 지역 확산

ㄱ) 중앙 아동교육분과가 정착화하고 활성화된 것에 반하여 지역 분과는 기초에서도 밝혔듯이 세집이 두집으로 변하면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고 분과내에서도 고민도 적었고 지역내에 인지도 적어 분과원을 확대시키지도 못했다.

ㄴ) 모임때마다 사안에 밀리면서 분과 논의가 교사 전체에게 확산되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나 교사들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수련회때 동화교구를 함께 모여 만드는 기회를 가졌다.

- 현재 탁아소가 4곳이 되었으므로 더욱 활발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ㄴ. 교사재교육(교육철학 공유)

실제고 교육철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는 힘들었지만 중앙의 교사토론회 주제를 가지고(각 집에서 고민하는 내용이었으므로) 교사간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서로의 아동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모아서 하나의 자료로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중부지역

- 평가를 제안하며

여러 곡절을 거쳐 탁아활동을 시작하면서 늘 아쉬움을 가졌던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조금 알면 아는데로 모르면 모르는 만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커나가게 할지 막막하고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 고민은 한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부분 교사들의 고민이었기때문에 '아동교육분과'라는 모임을 갖게 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분과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평가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고 보니 이 평가가 단지 형가라는 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활동을 더욱 체계적하고 활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ㄱ. 기간의 활동을 돌아보면

(내년의 계획을 위해 분과 고유의 내용이 될 것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ㄱ)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한 마을 어린이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인형극과 같은 프로그램 이후에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ㄴ) 충분히 점검되고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식물', '가위질' 등 공동 교육계획을 정했었습니다.

ㄷ) 여름수련회 준비로 언어교구제작을 했습니다.

ㄴ) 분과 활동으로 4회에 걸친 '발달심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캠프, 재물잔치 등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과제로 남기도록 합니다.

ㄷ) 3회의 아동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ㄴ. 분과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면

ㄱ) 교육내용의 교류를 통해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ㄴ) 올바른 아동관과 교육관을 정립해나가며

ㄷ) 활동하는 교사들에게 서로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 목표에 따른 과제는

ㄱ) 이론적인 학습과

ㄴ) 교육내용의 교류였습니다.

바쁜 일상활동과 어머니대회와 같은 큰 행사들을 치루는 과정에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맞는 활동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분과의 자리매김을 위해 냉철히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ㄷ. 조직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전체지역활동중에서 분과 고유의 역할을 어떻게 배치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 주체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고민도 함께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ㄹ. 평가의 원칙은

하나, 짧은 기간의 활동속에서 성과를 남기고 축적하는 것
둘, 오류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이후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힘으 되도록 하는 것이다.

ㅁ. 과제에 따른 구체적 평가

ㄱ) 교육내용의 교류에 대하여

- 필요성은 공감하나 준비가 부족
- 기존의 일지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교육에 관한 대안

하나, 교육일지, 생활일지 등을 전체 교사가 공유하는 가운데 작성하여 각 집의 성과로 남기고

둘, 분과에서는 월 주제에서 바람직한 교육내용을 정하여 공동의 모범으로 남기도록 한다(월2회)

- 연간 교육주제를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ㄴ) 이론 학습에 대하여

- 교사로서 안정하는데 많은 도움
-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 자기 반성의 계기와 고민의 계기를 주었다

ㅁ. 총평

짧은 활동기간과 바쁜 일상속에서 교사간 긴밀한 결합을 바탕으로 93년을 내다보는 하반기 활동이었다. 교육분과 모두 각 집의 교육 주체로 올곧게 서도록 끊임없이 자기 혁신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아동관, 교육관의 정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4) 안산 지역

ㄱ. 총평

분과모임의 정착화와 지역내 아동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이라는 92년 목표가 잘 이루어졌다.

- 각 교사들의 아동관이 변화했으며 '아동중심의 아동관'으로의 합의들이 어느정도 가능해졌다. 이것은 아동관에 대한 점검의 기회가 많았으며 중앙분과, 지역 분과의 유기적 결합과 재교육의 성과이다. 그러나 교사 개개인의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인 교사들간의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구조의 상설화'가 요구된다.(예,꿈나무의 주1회)

- 각 집간의 정보 교류가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간의 작업 프로그램 위주의 교류에서 각 탁아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류 및 교구제작의 정보 교류로 확대함으로써 각 탁아소의 교육의 질과 아동교육에 대한 자극을 강화한다.

-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드러지는 사업이 없었으며 다른 사업들에 바빠서 주체의 여력이 없었다. 탁아소 내에서의 특별 활동과 일상 활동의 원활한 유지가 필요하며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들이 더욱 요구된다. - 하반기를 경계할것

ㄴ. 93년의 대안

ㄱ) 지탁연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교육내용, 교수방법 등) 노력을 통해 아동교육의 질을 높이자.

아동교육의 질적 강화는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보육시설이 탁아소로서 아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당연히 해야 한다. 특히 다른 민간탁아소와의 비교속에서 더이상 값싼 보육료만의 경쟁은 대안일 수 없으며 우리의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생산해내고 전교사의 합의와 참여속에 아동교육의 질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교육의 질적인 강화의 내용*

- 지탁연 교육목표의 구체화
- 지탁연 교육목표에 근거한 교육내용 마련(통일교육 등)
- 교구, 교재의 확보 및 제작
- 교육계획안의 현실성과 전문성

- 전교사의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참여 의지 및 실천
- 지역 분과, 중앙 분과의 강화 -> 교사재교육 실시

ㄴ) 지역 영아 탁아소인 '오손도손애기방'과의 아동교육분과의 결합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매 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추동이 필요하다.

ㄷ) 교육연구부의 아동관 토론회에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각 집 차원의 내용의 공유와 확산 작업을 통해 올바른 아동관 확립을 꾀한다.(분과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정리해냄)

ㄹ) 수과학자료집 평가

; 수과학자료집의 현실적 활용과 수과학교육의 재인식을 위해 교사들의 재교육이 요구된다.(각 지역 교육시 안산에서 담당)

; 자료집에 실린 프로그램이 실제로 해보고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93년은 탁아소에서 실제로 해보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 이후 자료집 제작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더욱 알찬 자료집을 만들어내자.

-> 안산지역 수과학교육:993년1/29(금)7:00 - 민간탁아소교사까지

8. 총평

한해의 활동을 통해 아동교육분과가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들을 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역할 수행에 따라 교사주체의 내실을 다지고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각 지역과 중앙에서 활동의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초기의 활동을 이어받아 질적으로 비약해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질적으로 비약한다는 것의 내용은 아동교육논의 체계의 정립과 탁아운동의 고유성으로서의 교육내용 생산,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들간의 합의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탁아운동이 변혁운을 지향하는 특수성을 가진 부문운동으로서 자신의 특수성속에서 변혁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보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시급히 제기된다.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가 활동해야 할 방향이며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93년의 활동을 힘있게 펼쳐나가야 하겠다.

9. '93년의 활동방향과 계획

93년은 영유아보육법 개정투쟁의 기치를 높이며 우리가 축적해온 지금까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개정투쟁을 탁아운동의 연장선 속에서 바라보면

싸움의 전술로서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일상활동의 고리를 놓지 않고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부과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93년에는 두마리의 토끼를 는 활동을 펼쳐야 하며 그만큼 아동교육분과에 제기되는 과제는 독자적이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올해의 활동방향성을 계승하는 '93년의 활동방향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탁아운동의 주체 역량을 강화한다.

- (1) 지탁연 교사들의 일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양적으로 풍부하게 한다.
- (2) 교육의 관점들을 계속 제시하며 합의수준을 높여간다.
- (3) 지역 아동교육분과의 조직적 활동의 강화를 꾀한다.

2) 세확보를 위한 대내외 활동을 펼친다.

개정특별위원회 활동평가

1. 92년도 하반기 개특위 활동일지

- 8/12 첫모임- 모임 방식 논의, 중앙개특위원 선정
- 8/19 개특위 상반기 평가서 검토, 개특위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 8/26 민탁연대에 관한 논의, 사대위 논의, 지방 미인가 탁아소에 대한 대처 논의(지방 개특위 제안하기로)
- 9/30 92년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제안서 준비를 위한 논의
- 10/7 경과조치 관련 법조항 검토, 제안서 논의
- 10/13 지방개특위
- 10/21 영보법 분석틀에 대하여, 실태조사 문항 초안 작성
- 11/3 지방개특위
- 11/4 93년에 대한 국회 자료 검토, 국회 제출 질의서 검토, 자료집 제작 검토 제안서 마무리 작업(기획안 만들기로)
- 11/18 법 교육, 개정 기획안 마련을 위한 논의, 분석 일정 잡기
- 11/25 실태조사 분석과 기획안 초안 마련
- 12/2 간부교육에 낼 개특위 기획안 논의, 하반기 사업 평가를 마련

2. 평가

그간 "개정활동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과 간부교육자료 "93년 개정투쟁의 전망과 진로"의 두 자료를 개특위가 10월과 11월에 걸쳐 내었는데 이 속에 92년

평가와 93년 사업계획이 들어나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단 개특위 차원에서 보완된 평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상반기 인자중심에서 하반기 지역위 참여구조로 바뀐데 따른 평가이다)

- 1) 하반기에 했던 사업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는 사업 항목만을 채택하고 이것이 체계없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이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업의 인수, 인계가 지역 책임주체에게 안되면서 중앙차원의 사업을 다시 잡을 수 밖에 없는 데서 오는 혼란함이다.
- 2) 이는 또한 개특위장과 담당간사의 준비부족과 참여주체의 역량, 조건상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회의분위기가 느슨하고 긴장감이 적었다.
- 3) 이는 각 지역 책임주체의 고민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제안서 참조) 행정 구역별 대응의 정도가 낮으며(시·도단위)
- 4) 중앙개특위는 확대개특위를 보강, 강화시키는 역할 담당
내년에도 확대(전지역 참여)개특위의 구조의 정착이 바람직하다(구조는 좀 더 논의해 봐야)
- 5) 각 지역의 개특위장이 활동력 보장을 받기 위해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개특위원은 기존인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연대 활동 평가서

1.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여연과의 연대활동은 먼저 92년도 여연 활동을 포괄적(구조별, 사업별)으로 살펴보고 전체 평가를 본 후 지탁연의 연대활동 내용을 평가해 보겠다.

1) 92년 여연 사업

(1) 지역위원회

지역단체의 대중조직화 방안을 위한 과제별 정책토론과 구체적 방법론 획득을 위한 활동인데 주요활동으로는 각 지역활동 계획 수립 및 평가, 중점사업 수행 방도 논의 등이다.

(2) 정책실

매시기 사안별로 제기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와 대안을 제시하여 여성운동의 방

향과 관련되 중장기적 과제를 토론하는 구조이며 또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기획, 제안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총선 평가 및 대응방안 논의, 여성의 의회진출 방안에 관한 토론회 준비, 하기정책수련회 논의, 대선방침 논의, 여성정책안 논의, 여성정책 해설집 발간, 민주여성 기획 등이다.

(3) 확대정책협의회(지탁연 참가)

서울부문 단체의 사업 교류의 강화 및 여성운동의 장기적, 조직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통해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중간 지도력 간의 인식공유도를 높이는 구조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총선 대책활동을 위한 선전물 기획 제작, 중점사업 교육 및 공유, 조직체계 및 회원의 관리방식 토의, 각 단체사업 공유, 하기정책수련회 주제 토론, 대선방침 논의, 사무직·여노자운동 정책토의, 지역부인조직에 관한 토의, 사업평가 등이다.

(4) 여연 특별사업 운영위원회(지탁연 참가)

각각의 부문운동에서 여성생활과 관련한 구체적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들을 위한 조직 및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진출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도록 특별사업을 지원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립

(5) 조국통일위원회

통일운동에 대한 여성운동 활동가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남북한 여성교류의 실현과 내용성 확보를 위한 내용지원과 북한여성바로알기 사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고 통일의 장애를 극복하며 군축운동에 대한 연대활동등을 벌이기 위한 구조이다. 주요활동으로는 1,2차 세미나, 김희선씨 수배해제 및 임수경씨 석방을 위한 탄원서 작성, 보도의뢰, 남북한 여성교류사업 등이며 연대활동으로 정신대 대책활동과 군축평화운동이 있다.

(6) 노동위원회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활동, 생존권 투쟁을 위한 지원활동, 정부와 기업의 노동통제를 목적으로 한 경영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책활동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구조이며 주요활동으로는 경영자총협회의 '여성관련 노동관계법 개악안 철회 촉구'성명서,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 마련, 비정규직 여성노동의 실태조사 및 공청회, 여성노동정책 마련과 홍보를 위한 연대활동 등이다.

(7) 주부위원회

주부들을 사업주체로 하고 있는 주부운동단체간의 사업에 대한 공유와 연대를 도모하여 주부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과 시로운 유형창출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수렴하기 위한 구조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주부운동단체 간담회와 설문조사, 주부위원회 등이 있다.

(8) 정치연대사업

MBC파업 대책 및 공정방송실현을 위한 대책활동

(9) 정신대문제 대책활동

정신대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배상의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정신대 사안을 역사적으로 복원해 내고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서 한,일 관계를 민족 자존, 자주의 회복을 통한 평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대협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활동이다.

주요활동으로는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앞 시위(계속적으로 진행중임), '정신대 아리랑'공연 등이다.

(10) 선거대책활동 (지탁연 참가)

(11) 하기정책수련회(지탁연 참가)

(12) 3.8 여성대회 및 9월 여성주간(지탁연 참가)

(13) 기관지 발행(민주여성)

(14) 중점 사업(성폭력 대책활동)

2) 총평가(이 글은 여연 사무국에서 작성된 초안이다)

1. 조직의 측면에서

-92년도 여연의 조직사업의 목표는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과 조직적 결속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주체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회원단체의 방문을 적극 기획하여 정확한 조직진단 속에서 제기되는 조직적, 선전적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의 마련과 활동가들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의 조직화, 정세토의와 주제별 교육 등의 배치, 지역위원회는 상담교육의 배치, 주부위원회는 주부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당면 문제점의 공유와 대중사업의 방식과 매개 등에 대한 논의 등을 계획하였다.

-지역위원회는 단체방문을 통해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지는 못했지만 단체의 현황과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정기적인 단체방문을 정례화함으로써 조직진단의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지역위원회의 사업은 프로그램에 따라 결함이 편차가 나타나며 예년에 비해 조직적 결함이 느슨하게 나타났다. 이는 첫째 내부적 어려움에서 일정부분 기인한 점, 둘째 프로그램의 기획면에서 지역의 요구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역단체에서 일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체별로 각종 내부적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그동안 지역에서 수행해 왔던 총체적 여성권익체로서의 위상과 활동이 창립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벽에 부딪쳐 구체적인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이 절실하게 내외적으로 요구되지만 실무지도력, 제정, 구체적인 전망과 활동계획의 부족,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의 부족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지역단체가 잡고 있는 대상이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꾸려온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단체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 지역위의 프로그램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따라서 93년도 지역위원회의 사업방향은 전문성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년2회로 줄이고 조직대상이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워크샵이나 정책토의를 연속적으로 집중기획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확대정책협의회는 부문단체간의 사업교류와 각 부문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요사업에 대한 주요논의를 함으로서 여연의 사업에 대해 참여와 논의를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장기적, 조직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연의 사업에 대한 공유도를 높여가는 측면이 필요하다.

따라서 확대정책협의회를 공식화하여 상설위원회구조로서 편제하여 (명칭변경: 정책협의회) 실질적인 책임과 집행을 담당하여 조직적 무게를 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연의 중요사업에 대한 논의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정책실은 목표로 삼았던 위상과 과제를 대부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지만 현재 정책실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과 정책실의 위상이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되면서 현재 정책실의 역할 중 때시기 사안별로 제기되는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확대정책협의회에서 일정 수행하며, 전문적인 정책이나 과제에 대한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평화군축 사업과 관련한 조국통일위원회는 우선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위원회 자체의 인원이 13인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위원회가 중심사업 과제로 설정하였던 '여성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통일운동 사안을 교육, 선전하였으나 위원회 자체의 연구역량에 기초하지 않은 외

부역량에 치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직적 결속력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대협과의 연대사업과 관련하여 '정신대아리랑'을 대중적인 문화제로 진행함으로써 여인의 조직적 외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정신대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가 계속 하락해가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하반기 '하반기 여성노동정책'마련과 이의 선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의 노동조합, 전노협, 전교조, 한여노협과 구체적인 사안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이의 여론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론 노위의 조직외연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여론 노동위원회와 한여노협에 이중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서울여노와 인여노를 포함한 한여노협과의 관계 설정이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지도력부분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거의 정례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회의의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여론의 주요지도력간에 여론사업에 대한 사업방침과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논의안건에 대한 의결과 집행이 회원단체의 하부단위까지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던 측면이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집행위의 구성인자가 여론의 주요사업의 위원장외에 회원단위와 결합된 지도력의 구성이 좀 더 보완되지 못했던 측면에서 기인된다고 보여지며 이후의 집행위구성은 이러한 지도력의 추가구성을 요한다.

-실무자교육의 배치는 92년도 사업과제로 편제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부분과 회원단위 자체내에서 이미 소화시켜낸 부분이 서로 작용된데서 기인한다.

-성폭력특위는 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회원단체가 성폭력사업을 전개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즉,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외곽단체와 연대하여 대책활동을 벌여나가거나(충북여성민우회 외), 성폭력사업을 근간으로 한 연대모임을 결성하고(대구여성회:성폭력추방대구지역시민단체협의회 결성),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하는 등(부산여성회, 경남여성회), 성폭력 대책 사업을 전개하면서 각 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점사업중 이례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더욱 특기할 만한 성과는 실무자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회원대중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회원단체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여성민우회:사무직위원회, 부산여성회:주부분과, 대구여성회:전·방·주등) 그러나 회원단체의 여론 주회 공개행사 참여율이 무척 저조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연대해 오지 않았던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 외곽의 28개 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공동결의대회와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조직한 것은, 전체 여성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고 여성운동의 조직적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할 만하며, 앞으로 이러한 연대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이외에 법조인, 학자 성폭력대책활동을 위한 전문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외연의 확대에 기여했다.

-주부위원회의 경우, 주부운동의 현황 점검 및 주부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극복되어야 할 점, 과제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부운동을 다양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여론 외곽 단체들과도 그간의 축적되어 온 여러가지 실천적 경험과 성과, 과제등을 사례발표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향후 주부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주부운동단체간의 내용적 연대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워십의 수준이 아직 단체간의 사업교류와 문제점 진단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더이상 구체화 시키기에는 그간의 축적된 성과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 주부조직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거나 성공적인 사례연구를 통한 검증과 토론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부조직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의 재생산구조및 여성운동의 영향력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여대생간담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여성운동과 여대협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바 이를 여성운동의 주요한 구조로 안착시키기까지는 여대협자체내에 여대생운동의 주체를 세워나가면서 여대생운동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까지 지난한 과정과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사안별 연대를 통한 상호간의 연대망의 지속성과 축적된 지도력간의 교류가 요구된다 하겠다.

2. 선전의 측면에서

(1) 성폭력특위와 관련한 선전사업은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실상과 사회적 규범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성폭력 피해자 및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이자 인권문제도 인식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한 한해였다.

또한 정부와 각 정당에서 성폭력종합대책안과 성폭력특별법 마련을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는 등 여성계의 요구와 주장이 주요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낳았다. 성폭력추방상징물, 홍보소책자 제작, 배포, 다양한 문화집회 등, 대중과의 다양한 접촉국면을 형성함으로써 성폭력추방과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

한 대중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증폭시킨 한 해였다고 평가할 만하며, 회원단체의 일상적인 실천활동에 있어 유용한 매개고리로 작용함으로써, 회원단체(한국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등) 소그룹활동의 활성화와 일반 사회단체와의 실천활동을 매개로 한 교류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외에 회원단체 및 성폭위 참가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은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증폭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방향과 내용, 각 당 특히 민자당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하는데 있어서는,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인해 토론회 등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가두서명과 전단배포 활동으로 법 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였으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효과적인 선전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하겠다.

(2)노동위원회는 92년 중심과제를 날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비정규노동인력의 확대에 대한 대책 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노위단위로 제기되는 현장의 투쟁사안이 부족하였으며, 노조 단위와의 결합력이 높지 못하여 비정규노동의 실태에 대한 폭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선전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와서 노조, 노동운동단체, 전교조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자료집의 발간과 공동선전 사업은 여성노동계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노조단위까지 선전하고, 교육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와 기업에 의해 다각도로 변화되는 노동통제정책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 노동조합 등과의 내용적인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여연 노동위원회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3.8대회와 9월여성주간

3.8대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는 초기에는 여연이 3.8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상징적으로 대회를 여는 의미가 있었으나 현재 전국 각 부문 단위별로 3.8대회가 확산되어 열리고 회원단체의 결합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해 여성운동의 방향을 선포하고 회원단체간의 결의를 모아 나간다는 의미로 잡은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9월여성주간에 대해 사업을 편제한 단체는 5단체이며 그나마 시기와 지역에 있어서 예년의 여성주간행사 결합도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이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누적되어 온 것이며 상반기 3.8여성대회의 평가와 맞물려 여성주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주간에 대한 해소와 3.8로의 집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3p 하단으로 이어짐)

3) 연대활동에 따른 평가

여연이 지탁연의 상부단체이며 여성운동의 중요한 전선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본회

와의 조직적 결합의 긴밀도는 상당히 느슨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적 결합의 정도가 연대 담당자에게 일임하는 현재로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최근 탁아운동론을 통하여 조직적 관계의 설정 논의 등을 통해 여연내 탁특위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던 91년에 비하여서 부분적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즉 여연을 본회의 상부단체로의 인정, 여연활동 대한 공유 정도는 확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여연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또한 여연활동을 올바르게 견인해 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조직의 힘을 실은 의견 개진과 여연 사업계획서 참여 및 지탁연 사업내의 반영 강화 등 보다 책임감있는 고민과 실천활동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2.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사업 내용

- (1) 사대위 공청회 및 발대식
- (2) 간부 수련회
- (3) 예산 요구안 공동작성
- (4) 대선활동
 - 사회복지정책 결의서 작성
 - 후보자와의 간담회
 - 보고대회

2) 사대위 평가 및 전망

(1) 소속 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아직 사대위가 결성되어 활동한 지 오래지 않아서 각 단체별로 내부적으로 볼 때 굳건한 조직적 결속정도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반기 활동을 통해 조금씩 극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대위의 연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논의구조에서 제차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 후 조직적 결속도를 높여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그간의 사업속에서 나타난 장단점

그간 각각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의 활동과 고민을 알게되었고 공동적 고민을 제삼 확인하게 되었다.

모임의 역사가 짧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비종있는 현장과 연구자들이 결합함으로써 좋은 정책대안 및 자료가 나온 것이 성과이며 비록 구체적 성과로 나오지는 못하

였지만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공동투쟁의 모형을 창출할 가능성을 보였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서 내부적 연대의 결합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집행주체의 보다 면밀한 사업수행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따라서 지금의 논의 및 집행구조가 하나가 되어 운영되었고 담당자가 각 단체의 대표격이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부적합하여서 생긴 문제이므로 이는 이 후 최소한 두개의 구조로 정착시켜야 하며 재정형편에 맞추어 파트간사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그간의 사업이 조직적 결합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전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향 후 이러한 사업방식을 줄이고 당분간은 상층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함이 올 것이다.

92년도의 각 각의 사업이 시기성을 요하는 것이었으나 대선관련 조건의 변화와 준비주체의 부족으로 그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후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도 사업일정을 사전에 철저히 타진하여 활동해 나가자.

〈예산확보투쟁을 위해 예상되는 시기〉

〈대책 활동〉

4월 보사부 계획, 경제기획원 예산안 편성

- 3월 간부수련회

- 예산요구안 작성, 부처별 요구

6월-7월 마무리, 당정 협의

- 7월말, 8월초 공동요구안작성

- 공청회(개별단체 요구활동)

8월-9월 국회상정(예결위, 상임위)

- 로비(국회의원 방문, 회의

참관)

12월 본회의 상정, 최종 결정.

3) 사대위 연대활동에 따른 평가

지원요구투쟁 및 개정활동이 개시되면서 탁아운동의 사안이 보다 전문화됨에 따라 탁특위가 잠정적으로 해소되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연대구조가 없어서 내심 우려되었던 바가 올 해 사업전망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연구자 모임의 평가작업과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제반 사회복지단체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이에 급속하게 만남이 주선, 사대위가 결성되었다. 초기에 내부적 이해도나 합의과정이 전무하였기에 내부적 혼란이 있었지만 그간 사업수행과정 및 운동론 논의과정속에서 일정정도 해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대위활동은 우리의 지원요구투쟁 및 개정활동에 상호 도움이 될 집단이다. 문제는 다른 연대활동과 마찬가지로 이 활동에 대한 조직적 결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물론 사대위 내부평가에서 나타나듯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상층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무리한 조직 동원을 피하기로 합의하여서 큰 문제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조직구조내에서 정착되지 못한 연대활동의 조직적 참여의 원칙과 방도가 총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전국도시빈민운동협의회

정부의 도시빈민정책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활동이 주요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도시빈민지역운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조직적인 단결의 구심인 '전국 도시빈민 협의회'가 지난 7월 9일에 건설되었다. 이는 빈민지역운동에서 오랜동안 논의되어 온 도시빈민대중의 통일대오 형성의 귀결인 것이다.

이에 지탁연은 탁아운동을 빈민지역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고 나아가 도시빈민여성의 제과제를 빈민운동 진영에서 실천적으로 풀어가고자 빈민지역에 소재하는 탁아소를 중심으로 도시빈민위원회를 구성,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 간 활동상에 나타나는 일의 과중함과 예상 외로 내부적 추동력이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빈민운동 진영내의 당면활동이 우리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 공유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 결성이후 상당히 소원한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지난 11월, 내부적 동력이 나타날 때까지 활동 정지를 하기로 하였다.

(top 장안에서 이어남)

(4)정신대문제의 역사적인 복원과 진상의 규명, 배상추구를 위한 정대협 연대활동과 관련하여 수요시위, 정신대 아리랑 등을 기획, 집행함으로써 정신대 사안을 국민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5)민생문제(물가, 주택, UR 등)와 연관한 선전사업은 사안에 따라 관련 회원단체와 연대하여 수행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총선, 대선 등의 주요 정치국면에서도 대중적인 투쟁사안으로 제기되지 않으면서 대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활동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역량의 부재, 축적된 활동 역량의 부족은 이후에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위원회 총평가서

• 북부, 동부, 성남,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전북지역은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해 실지 못합니다.

< 중부지역위원회 >

1. 하반기 활동목표

1) 지역위 활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교사 개인의 역량강화를 꾀한다. -> 소모임 꾸리기, 교사교육 프로그램 마련

2) 모임의 틀을 확대 강화 - 월1회의 대표자회의 구성

2. 활동 내용

중탁위 조직체계의 확대를 위해 개특위원, 교사조직분과원 활동

3인으로 구성된 아동교육 소모임 마련

3. 평가 및 대안

1) 교육소모임 -

① 교육내용의 교류를 통해 교육환경,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아동관, 교육관을 정립하고, 교사간의 친목도모를 꾀한다는 목표하에 이론적인 학습과 교육내용을 교류

② 기존의 교육, 생활일지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요구되고 연간 교육주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③ 총평 : 분과원 모두에게 교육주제로 올곧게 서도록 끊임없이 자기혁신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아동관, 교육관의 확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개특위 - 개특위 사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되지 않았고, 책임선의 활동이 미비했다. 개특위 사업과 민탁연대사업을 힘있게 꾸릴 수 있는 책임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교사조직분과 - 지역내 활동내용을 갖지 못한채 중앙의 분과원으로만 활동

지역활동의 방안으로 두달에 1번씩 교사교육프로그램 진행

4) 지역모임 강화 - 다른 집 교사에 대한 정이 부족, 집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활동이 내 집일 처럼 느껴지지 않아 피상적인 참여 수준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

었다.

교사순환제를 실시하여 각 집의 상황을 온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각 교사에게 책임에 대한 주체의식을 갖게 한다

지역모임 이후에는 반드시 뒷풀이 시간을 갖는다

4. 총평

눈에 확연히 띄는 커다란 사업내용은 없었다 하더라도 매 시기 요구되는 활동에 각 집의 교사, 자모들이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자신있게 평가 할 수 있다. 지역모임의 정착화를 이룬 것은 92년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고, 그것을 한층 더 강화, 발전시키는 일이 93년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 봉천지역위원회 >

1. 지역활동 일정 생략

2. 분과 평가

1) 아동교육 - 다른 부분에 치중하다보니 초기에만 잘 굴러가다 후반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음. 공동교육계획안을 여러가지 이유로 무리가 따름

역량안에서 적절한 배분으로 기존의 자료를 적극적 활용 (93년)

2) 교사재교육분과 - 상반기 잘 이뤄졌으나, 하반기 인자가 떨어짐으로 이뤄질 못함. 지속적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인자 배치 고려

3) 조직분과 - 내부 교사들의 학습에 치중 (상반기) 하반기에는 적극적 자모조직 고리가 없어짐. 사업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했다. 내년 사업의 중심고리로써 많은 고민 요구

3. 93년 계획 및 전망

지역내 교사인자가 급격히 줄게 되므로 내부 활동에 중심을 둔다

개특위 인자가 적극적으로 중앙에 결합함으로써 개정활동의 끈을 계속 이으며, 지역내 민주세력과의 연대, 지역의원과 지속적 연대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지역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활동을 중앙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함.

< 구로지역위원회 >

1. 하반기 활동목표

1) 지역위 조직체계를 안정화하고 지역위활동을 전제교사가 공유하도록 한다.

2) 사업을 통한 자모의 활동수위를 높여나가고 2차자모조직을 위한 토대마련으로 자모의 역량강화와 조직의 발전적인 전망을 마련한다.

3) 교사제교육과 교사간의 인식차를 좁힐 수 있는 공감대를 확대하고 인간관계 향상을 위해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간중심의 사고로 활동한다.

2. 활동일지 및 내용

생략

3. 본리활동평가

1) 자모조직

〈활동목표〉 1 분과모임의 틀을 잡아 내용을 질적으로 높인다.

2. 각 단위별로 자모소모임을 꾸리고 활성화 시킨다.

〈사업내용 및 평가〉

* 공동자모회 (자모조직사례) : 지역을 둘로 나누어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됨.

강의 내용과 방식이 좋았고 이후 단위내 자발적인 소모임이 진행됨이 큰 성과였다.

* 어머니 큰잔치 준비 및 참여 : 자모준비팀이 꾸려져 내용을 공유하고 자모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았다. 교사의 기술적인 지도력이 떨어져 내용을 잘 살리지 못했고 당일 참여자세는 교사, 자모 모두 모범이었다.

* 공동임원교육(자모회의 주체적 참여를 위하여) :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진행되었고 자모들의 토론이 활발했으며 실천적 과제가 많이 도출되었다.

〈총평〉

공동자모회와 임원교육 실시 후 낮은 차원이거나 소모임을 꾸리고 있거나 소모임의 필요성을 자모 스스로 느끼게 됨이 큰 성과이다. 하반기 역시 어머니 큰잔치 행사준비로 자모조직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모조직의 내용과 방식, 지역적인 전망들에 대한 많은 논의와 사례연구, 학습하는 자세가 보다 요구되며 계획을 잡아 진행시켜야겠다.

2) 교사교육

〈활동목표〉 교사제교육 실시하여 탁아활동의 전망을 잡아 나가고 탁아활동가로서 신념을 갖고 활동에 정진하게 한다

〈사업내용 및 평가〉

교사제교육 (5회 실시) 행사가 겹쳐 참여도가 낮았지만 의의는 높았다.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과 시기 선택, 대상자 선정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평〉

분과활동의 틀이 잡혀가고 있으나 교사교육 실시에는 아직 자료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교사교육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탁아운동등 제반 논의의 활성화에 노력해야겠다.

기타 소모임을 통해 교사 친목도모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연습부족으로 큰 성과는 없었다.

3) 아동교육

〈사업 평가〉

문제행동 사례집 :전체교사가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지만 활용도는 높았다.

교육철학 세미나: 내용이 부실했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전체교사까지 내용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총평〉

상반기에 비해 모임이 활성화되고 논의력이 강화되었으며 월례회시 노래를 보급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분과장, 분과원들의 변동으로 내년 활동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4) 개특위

〈활동 목표〉

지역교사 뿐 아니라 자모들까지 법개정전선에 함께 한다.

민탁모임을 형성하여 탁운의 장기적 조직강화에 기여한다.

〈평가〉

낮은 차원이거나 민탁연대의 단초를 마련하였음이 성과

하반기에는 개특위 구조가 안정화되었고 활동내용도 마련하였으며 내년의 법 개정투쟁의 전면화를 위한 일정정도의 틀은 마련하였다.

지역현실에 근거한 구체적 실천은 있었으나 장기적 전망과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전체 교사와 자모가 공유하지는 못했다.

분과원 소수에 일의 하중이 집중되었다.

〈총평〉

논의형태는 발전하였으나 구체성과 법개정 투쟁의 전면화를 예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

지역장의 결합이 타당하였고 이를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논의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었다.

특위가 아니라 본과로 자리잡아 안정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전망>

민탁연대의 장기적인 전망과 조직틀 마련

지원요구의 전면화 (아동 및 시설 지원)을 예고하기 위한 활동전개

각종 교육(월례회, 자모교육, 신입교사 교육)에 결합하여 활동을 공유하고 법개정의 전면화를 예고한다.

5)운영위

<활동내용>

본과,특위 활동보고,점검, 중앙회의 보고, 단위활동 점검,회원 동정 및 가입,탈퇴 심의,월례회 준비 점검,행사 주관

<평가>

현상적인 보고에 그쳐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단위 / 본과활동의 점검과 지도,본과간의 연계와 활동공유가 되지 못함)

임원(총무)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어 활동이 부진하였다.

최고 책임구조로서의 위상과 권위의 형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회원 가입 탈퇴등에 관한 논의 절차나 논의 과정에서 지도력 발휘나 문제에 대한 의견 조정 등의 능력 부족)

지역장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배려가 있어야겠다.

<대안> 지역장의 활동력과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반상근을 제안

논의의 수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내부세미나 등을 실시

과다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자 (일부 조직개편)

4. 93년 활동 방향

'92년 지역위 활동이 안정화됨을 토대로 지역위의 내부조직체계와 규율을 강화시키고 운영위 지도하에 지역위의 결속력을 높여나간다. 또한 민탁연대모임의 조직적 확대와 전망을 제시하고 경과조치 투쟁, 다양한 제도요구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탁운의 제 과제를 지역특수성 속에서 올바르게 실천해내며 탁아운동의 주체세력의 화

대를 피한다. 현재 꾸려지고 있는 소모임 (2차 조직)을 올바른 지도하고 조직적 전망을 확보해 낼 수 있는 활동가로서 지도력 향상에 역점을 둔다.

(사업 내용)

- 1) 운영위의 지도력과 논의력 강화 (위상, 권위 확보, 정책기능)
- 2) 교사로서 장기적 전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활동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배려를 하며, 이를 지역내규로서 뒷받침한다 (복지, 기혼배려, 휴가 등)
- 3) 일부교사에 일이 집중됨을 막고 신진교사의 활동력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민탁 및 지역연대 활동담당자 둔다. 신진교사에게도 적절한 임무를 맡긴다)
- 4) 지역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도력을 키우기 위해 반상근제를 제안한다
- 5) 개특위를 본과체제로 편성안정화하고 본과원을 확보한다
- 6) 월례 교육시 각 본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마련한다
- 7) 각 단위별 수익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특별자금 마련을 위한 공동수익사업을 실시한다
- 8) 신입교사교육, 교사재교육은 내용을 보강, 대상을 미리 선정하여 실시하며 년초에 계획안을 마련,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 9) 활동의 전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논의와 실천의 폭을 넓힌다.

<안산지역위원회>

1. 사업목표

- . 조직체계 안정화와 규율 준수를 통한 안탁위, 지탁연내 연합적 결합도를 높인다.
- . 주체역량 강화 - 임원진 단련 통한 자모회내 지도중심 세울 것,
 - 신진 자모의 적극적 활동 추동 방안 마련
 - 교사간 유대강화와 재교육 다양화
- . 탁아운동의 세력확대를 위한 기반작업을 실시한다
- . 일상활동과 특별활동의 유기적 결합의 원칙 실현, '93년 법개정투쟁의 전면화를 위한 준비기로서 그 기반을 다진다.

2. 1992년 활동일정

생략

3. 사업목표별 평가

1) 조직체계 안정화와 결합력 강화에 대하여

: 각 체계가 안정화, 내실화 다지는 한해 되었으며, 특히 중앙체계와의 적극적 결합, 중앙사업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 이후 각 체계내 위상과 역할에 맞는 사업내용의 강화와 더불어 체계간 교류, 점점의 통로되는 확대대표자회의의 정례화가 요구된다.

① 개별회의 사수도, 논의력 강화에 대한 고민 깊으며, 상반기 이후 개정활동에 관한 논의도 높아졌으나, 이후 아동, 교사, 각 분과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이뤄지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② 자모, 교사분과의 1인체계가 지속되어 별도의 지역사업을 내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92.'93지역역량 비취볼때 1인 체계에서 별다른 변화는 예상할 수 없다. 교사정 치토론회, 어머니 큰잔치, 대선 자모교육안 마련 등을 볼 때 1인 체계나마 지역분과를 살려내고 중앙활동에 적극 결합 지속할 필요에 합의.

2) 주체역량 강화에 대하여

: 개별 탁아소 사업의 안정화와 지역위 활동 공유속에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결합하는 구조 (분과, 개특위, 공동임원회 등의 상설화)를 마련해내고 조직적 역량강화 이루는 시기되었다. 자모대중, 특히 임원진 등 선진자모의 지도성 발휘를 위하여는 중앙, 지역차원에서 원칙수립, 교육 및 실천기회 및 조건 보장을 위한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①교사: 활동가로서 단련되는 시기 (선거시기 전선체 결합, 기타 개정활동 통해)를 거치는 가운데 모두 적극적 자세와 전망을 고유하는 계기 되었다. 그러나 이후 '93 초기에 탁운론에 대해 제합의해 내는 기회를 통해 보다 긴밀한 결합 피할 필요성이 발견 된다.

② 자모: 개별, 공동 자모회 및 임원회의 안정화는 물론 자부추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동지원선 확대 투쟁에 자모대책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의 성과로 '93 간식비 지원예산 편성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모의 유동성, 서비스 분야 재취업 등이 크게 늘고 있어 탁아소 운영의 기본요소 (임소조건, 운영시간..)에 대한 재점검과 지역내 탁아수요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로 요구되고 있다. 선진자모 교육내용을 충실화하기 위한 교육자료 및 초기 적극적 면담 실시, 소모임 구성을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③ 아동: 아동교육분과의 지역, 중앙에서의 모범적 활동을 통해 아동교육에 대한 중요성 각인, 논의확산이 가능하였다. 이후 지탁연 교육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

천가능한 교육안, 교재 교육마련의 과제를 각집에서 받아내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3) 탁아운동세력확대

:민탁연대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민탁공통의 문제를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93 민탁시설 운영비 지원투쟁에서 공동투쟁을 통해 그 발전 전망이 명확해지리라 본다. 선거시기를 통한 전선체와의 적극결합, 이를 통한 '대중운동과 민민운의 결합'의 원칙을 현실화해내고 있다. 총선이후 지역내 '계층단체 연대들'을 구성키위해 활동했으나 아직 구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4) 일상활동과 특별활동 결합, 개정투쟁기반 단진다.

:지역설명회가 전년에 이어 정례화되므로써 지역내 선전효과도 컸으며, 지역개특위 구조마련과 민탁연대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앙차원에서의 조정속에서 각 분과의 일상사업과 특별활동간의 결합이 모색되었으며 이후 '93년도에는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사업에 관한 교사재교육의 일상화란 과제는 아직 미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5)총평

- 1) '92년 지원선 확대투쟁 및 안락위 사업목표의 시기 적절성.
- 2) '93년은 올해의 목표 및 사업이 내실화를 이루는 시기되어야 한다.
- 3) 개정활동에서 전지역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선행될 것은 소속 지역의 주, 객과적 상황 및 투쟁의 고리를 잡아야하기위한 과학적 점검과 자신감 회복이 요구된다.

<안암지역위원회>

1. 지역모임에 대하여

다람쥐 놀이방이 지탁연 가입을 하므로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갖게 됨.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서로 힘이 되고 효과적으로 일해나가며 조직에 대한 활성화에 합의.

2. 방향과 필요성

.교사의 어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정기적 모임 날짜등 정례화

.민중교회, 비 민중교회 탁아소의 차이성을 극복하고 함께하는 과제로 남음

.탁아별 교류, 친목 기반으로 지역행사 치름

.발전되는 내용과 역할 분담 등 조직적인 틀로 지탁연과의 유기적 관계 자료 및 정보제공, 연대감

3. 평가

- .지탁연 관계는 내부분제로 지대의 참석 및 활동이 원활하지 못함.
- .지대의 논의과정 각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됨.
- .지역사항과 지탁연 입장 합의되지 못함
- .지역의 고민들 지대의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못함
- .상부,하부의 관계 신속 요구
- .아동교육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받음.평소 느끼고 있던 문제들 정리할 수 있었음.
- .각 분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성 있음.실제 활용 가능

〈부천 지역위원회〉

1.사업목표

.91년도 분과체제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부탁위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연대사업의 폭을 넓혀나간다.

.하반기 사업목표로는 부탁위 교사,탁아소의 조직적 결속력을 높여나간다.

2.조직체계속에서 각 단위 평가

1) 대표자회의 - ①각 탁아소의 요구수렴,부탁위 사업 집행 ②부탁위 사업 논의 ③월례회의 준비를 하는 단위로 하반기에 들어서서 새로이 만들어졌다.

.분과장 회의를 대표자회의로 개편한 것은 타당하였다고 보여지나 전제가 되어야 할가 탁아소의 회의가 정착되어야 원래의 취지를 심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탁아소를 대표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대표자회의 단위의 지도력 강화와 대표자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해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

2) 분과평가

전체적으로 분과구성원의 교체가 심하고 신진교사가 많은 상황에서 분과사업을 안정적으로 벌여내기가 힘들었다. 분과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분과사업이 전체의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교사,탁아소의 요구가 대표자회의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어야겠다.

3)월례회의

개별 탁아소보고,분과보고,대표자회의 보고,연대사업보고,안전 처리로 주내용을 삼

았으나 대표자회의를 통해 안전을 처리하고 추후승인하는 정도로 하고 부탁위 성원 결속의 장으로써 교육의 성격을 강화하자는 평가

3.주체역량 평가

부탁위의 실질적 주체인 탁아교사들 간에 조직적 결속력의 편차가 심하다. 92년도 들어 새로 들어온 10여명의 교사들에 대해 조직적 관리가 필요했으나 일상업무나 여타의 사업에 밀려 신진교사교육이 실시되지 못한것이 문제였다.탁아활동가의 자질 향상과 부탁위 활동속에서 사업의 전망을 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탁위 교사의 결속력을 높이는 주요한 고리라고 할 때 교사재교육 (자모사업에 필요한 교육,아동교육,개별위 활동 등)이 강화되어야 하고, 목적의식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사업의 전망을 내오려는 노력이 꾸준히 되어야 겠다.

4. 자모사업 평가

1)성과

.개별 탁아소의 자모회가 안정되고 있다.(계,소모임 등 자모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음)

.부탁위 공동임원자모회의가 정례화되었다.

.부탁위 공동행사,지탁연 행사의 참여도가 상반기에 비해 높아졌다.

2)한계

.자모사업 중에서도 부탁위 고유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법개정활동에 대한 홍보,선전 및 실천 활동을 자모대중에게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하였다.

.자모조직사업을 한 차원 높여내기 위해 필요한 자모조직 사업의 전망을 내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3)대안

.교사들간에 자모조직사업의 전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낸다.

.실천활동속에서 자모조직의 전망을 내오고 중심을 꾸린다.

5.아동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1) 성과

.개별탁아소 교사들이 아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아동관 토론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했다.

.3명의 교사가 지탁연 신진교육강좌를 들었다.

2) 한계

교사의 아동교육에 대한 자질 향상을 꾀하려는 부탁위 차원의 조직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3) 대안

- . 아동교육에 대한 일상적 학습, 토론의 기풍을 세운다.
- . 모범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부터 배우고, 실험한다.
- . 현장교육에 필요한 교사들의 실기 능력 강화

6. 법 개정활동에 대한 평가

1) 성과

. 아동보육료 지원의 성공적인 확보 . 민탁연대의 단초 마련

2) 한계

- . 법개정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공유가 미진하였다.
- . 자모들을 이 활동의 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3) 대안

- . 월례회의등을 통해 교사교육강화, 실천활동강화
- . 민탁연대의 추진주체를 만들어내 연대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 . 자모들에 대한 교육강화, 실천활동 조직

7. 총평 및 사업 방향

올 한해 여러가지 변화된 상황속에서 대표자회의 신설, 탁아소회의 강화 등 각 단위의 유기적 결합속에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운영의 미숙함이 있고 구성원이 제 역할을 해 낼 수 있기 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탁위의 조직적 결속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공동의 평가였는데 부탁위 활동을 통해 활동가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각각의 실천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사업의 전망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공동의 요구와 역량에 맞는 사업내용을 잡아야겠다.

〈인천지역위원회〉

지난 12월 20일에 있었던 인탁위 정기총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 발췌하여 정리합니다.

1. 활동일지

생략

2. 사업목표

올 한해는 인탁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각 집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회의의 활성화를 통한 교사의 조직적 관리와 역량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임원회의 구조만으로는 부족한 지도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이었으며, 각 집 대표의 역할을 높여서 전체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인탁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기구의 역할을 가능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각 집에서 대표에 대한 민주적인 선정원칙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일면이 있고 단순역할 분담의 차원으로 인식하여 대표회의의 제자리를 찾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교사재생산 구조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의 부족현상과 이에 맞물린 무원칙적인 교사유입으로 인하여 탁아활동가로서의 인식저하현상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교사조직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공하였다. '92년도 탁아법 개정활동의 부문사업으로서 운영비 예산 요구활동의 성과를 올렸으나, 탁아사업의 제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결실과는 달리 교사들의 잦은 교체와 사업전망에 대한 자각의 부족으로 교사조직관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지도역량을 화, 강화하기 위한 대표회의 구조의 틀을 하반기에 이르러 부족하나마 정착화시킨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93년도에는 이를 확실히 보완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구조 평가

인탁위 조직의 주요구조로는 임원회의, 대표회의, 월례회의 교사회의를 들 수 있다.

. 대표회의 구조에 역할을 맡은 대표가 임원회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되어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업무가 집중되므로 대표회의에 참여하는 대표와 임원은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다. 임원회의의 내용은 대표회의와 중첩되는 것을 피하고 고유의 정책생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대표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보고는 문서화하고 인탁위 및 지탁연 연합사업 중심으로만 치중되기 보다 각집 운영체계, 교사관리, 등 운영상의 공동문제를 통일, 조정시키는 사안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표는 각 집에서 원칙에 입각한 선출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표교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구조가 마련되고, 대표에 대한 각집에서의 인정과 배려 조건을 명문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월례회의 경우 전 회원이 한달에 1회 모여 친목을 강화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친목과 단합의 기본 취지를 실현함은 물론 올해 부족했던 전 회원이 공유해야 할 안전에 대한 토의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직역량 평가

1. 교사

1) '92년 한해동안 15명의 교사가 나갔고 또 그이상의 교사가 들어왔다. 이는 역량이 체계적으로 쌓이지 못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 재생산도 충실히 못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2) 분과차장제도를 도입하여 임원 (분과장)의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일할 인력을 키우는 면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차장들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차기 임원진 구성에 힘있는 뒷받침이 되었다.

3) 경력교사들과 회장, 총무의 비합의에 의한 조직탈퇴로 지도역량상실과 소수인원에 대한 일의 집중으로 연합활동에 대한 의욕보다 부담과 피해의식을 가중시킨 일면이 있다. 이는 각집 대표의 강화와 임원진의 안정화의 대안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조직체계가 분과구조로 안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인식과 대표회의에 의한 대표들의 책임의식과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다.

2. 자모

올해는 자모조직과 역량강화에 주력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자모조직사업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다.

1) 상, 하반기 각 1회의 공동자모임원회의가 사안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모조직의 장기적인 전망속의 모임은 부족하였다. 이는 지탁연 전체활동의 축과 전반적인 탁아소활동의 과다현상과 맞물린 것이기는 하나, 잠재된 자모역량을 유지하고 신진교사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하반기 어머니 큰잔치 준비모임과 자모회장단 모임의 상설로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의 일면을 보였으나 행사위주와 임의적 모임의 성격이 강했다.

3) '93년도는 영유아보육법 경과조치 마감해이며 법 개정투쟁의 해인 만큼 자모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각 집에서도 자모회를 활성화하고 신진자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3. 자부

자부들의 역량은 진전한 일면이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91년도 비공식적인 축구대회가 공식 인탁위 행사로 되어 다수의 참여와 관심속에서 단합의 기회를 가졌다. '93년도에는 상, 하반기에 행사를 자부 스스로 제안했으며 이는 친목을 넘어 탁아소자부회와의 연결, 자모회와의 연대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자원활동가

상반기에 적절한 홍보로 15,6명의 인원이 모였으며 교사와의 연결속에서 자체내 모임을 가졌으나 자체내 구심력의 약화와 각 집의 자활관리의 부족으로 거의 해체 상태에 이르러 하반기 까지 그 양상이 계속되었다. '93년도에는 단순 자활과 재생산구조로서 조직에 축적된 역량이 될 수 있는 인력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활모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연대

탁아운영비 예산 요구활동을 이해 기반으로 한 민간보육시설과의 연대를 마련하여 탁아운동추진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 법 개정투쟁의 지지, 동참세력을 확보했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연대모임인 민보련의 활동방향의 설정과 추진력이 관건이 된다 하겠다.

또한 지역내 연대활동으로 기혼여성노동자의 조직을 위한 연관단체와의 연대활동이 하반기에 이르러 적극 결합되었고, 이후 상호 정기적인 교류와 사안별 연대 활동의 틀을 마련하였다.

6. 연합활동 역량

지탁연 중앙사업과 밀접한 결합이 부족하였고 분과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담당면에서 그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면이 있다. 또한 회원들의 연합의식이 아직 부족한 현실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분과활동 평가

1) 아동교육분과 - 분과원이 '91년도와 대부분이 바뀌어 목표 설정이 어려웠으나 인탁위 소속 각집의 아동교육의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회의가 정례화됨으로써 분과원의 단합이 잘 되었다. 분과원의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났으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해 역량 발휘가 어려웠다. 하반기에 접어들어 각 집의 상황과 행사 등에 밀려 열과

성익이 떨어졌다.

2) 교사조직분과 - 부족하나마 신진교사와 경력교사의 수위별로 조직화 할 수 있는 모임의 형태가 마련되었고, 각 모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 '93년도 교사조직사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3) 자모조직분과 - '92년 하반기부터 자모조직분과원이 집결되면서 지원금을 확보한 이후 과도기적 시기에 자모조직구조가 상실되며 비 적극적인 태도가 생기게 되었다. 지원금 확보과정을 통해 재정의 안정화 등에 도움이 된 반면 교사, 자모와의 관계, 자세가 다소 변질, 전환되면서 재정문제가 자모회 안전이 중심이 되고 다른 사안은 밀려 버리는 경향도 있었다. 또한 각 집 교사들의 활동도 과중한 업무와 모임으로 일상활동이 침체되고 자모조직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전 교사들은 분과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조항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내부업무를 이유로 분과활동에 불참하면서 함께 사업을 공유하는 자세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풍토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4) 지역개특위 (문제점과 대안)

.민보련의 원장중심 활동 부분에 있어 인탁위 집당 개별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에 힘쓴다.

.민탁연대에 있어 보육사업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공적 사업이라는 것과 영리성 배제, 자율성 확보, 나아가 국가의 책임하에 시설 지원을 따내는 작업 등 인탁위는 구별중심이 되어 견제해 나가고 작업을 해내며 민보련 활동에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상반기 작업 중 추경에서의 예산 확보 등 지원싸움에 매달려 인천시에 양성교육기관 유치작업을 확실히 매듭짓지 못했다. 관과의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과신하며 '93년도로 유치확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93년 1월초에 교육기관유치 촉구 및 최종 확인 마무리 작업을 한다.

.따라서 현직 기, 미혼 보육교사에 대한 장학금 혜택 확대요구부분도 93년 상반기로 넘어감

.중앙개특위에서 각 지역으로 제안한 「'93년 개정투쟁의 전망과 진로」라는 제안문이 개별 탁아소에서 재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2월 5일 간부수련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각 집 당 대표교사들은 교사회에 구조를 통해 탁아교사들의 탁아운동을 바라보는 그리고 단계적으로 영보법 개정운동을 바라보는 시

각변화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93년 사업방향과 목표

인탁위 '93년도 사업의 방향은 '92년도에 이어 교사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교사, 자모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인탁위 내규상에 명문화되어 있듯이 1년 회기내에는 조직을 탈퇴하지 않고 교사의 안정화에 노력한다 (회원카드 작성, 관리, 입회시 서약, 철저한 교육)

둘째, 교사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임원진과 각 집 대표들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 구조를 마련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원의 합의와 뒷받침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활동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킨다.

셋째, 각 집의 안정화 방안으로 공간과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요구활동과 방안을 모색하고, 탁아고유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사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교사 재생산 구조의 방안을 확보한다.

다섯째, 각 집 자모회의 기틀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신진, 기존 자모들의 각각의 역량에 맞는 관리방식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

여섯째, 인탁위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분과원을 확충하고 의무사항으로 두면서 분과활동을 강화한다.

<수원지역위원회>

1. 개특위

.책임주체가 1인이어서 부담이 컸고 고민이 부족-각 집에서 개특위원이 꼭 나와야 한다.

.93년도는 개특위 사업의 전망으로 조직강화를 이루자

.담당주체는 책임성을 가지자

.민탁연대는 각 집, 지역위가 우선적으로 튼튼해져야 한다.

2. 분과

아동교육분과 평가는 중앙분과에 포함되어 있음.

교사조직분과의 주제를 세워 교사조직강화에 힘써야겠다.- 새로 시작하는 탁아소가

많으므로 아동교육, 자모조직등 교사들이 받아야 할 재교육 내용을 사안별로 결합시켜 일을 해보자.

.자모조직의 주체는 현재 다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잡지 말고 이후에 전망을 내오자. - 무리하게 분과원을 잡음으로서 집중점이 없었고, 혼선이 있었다.

3. 주체역량 평가

1) 자모: 교사와 자모의 친분이 두터워졌다. 함께 일을 진행하면서 서로 많이 배우고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공동자모회나 공동회장, 공동임원회를 가졌다. 비영리 탁아소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같이한다.

2) 교사: 시간 약속을 잘 지키자. 교사개인의 전망이 명확치 않음으로써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신진교사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배려가 많았다. 교사재교육이 필요하다.

4. 총평

기존의 1달에 2번 전체교사가 다 모이는 회의구조에서 조직확대에 따라 대표자회의, 월례회, 분과회의로 나뉘었다. 지역위 교사들의 계획적 전망속에서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지만 매행사나 사업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사안별로 실천활동을 잘벌여왔다. 회의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등반, 야유회 등으로 교사들간의 친목이 돈독해졌다.

올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탁아소와 함께 안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험있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각 개별 교사의 폭넓은 고민이 절실하며 이후 조직구성으로 각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자. 중앙 참여를 높임으로서 시야가 많이 넓어질 수 있다. 지역위내 끌고온 역량배치가 필요하다.

< 광주지역위원회 >

1. 92년 사업 목표

. 교사재교육을 통한 광주지역 조직체계 강화

. 탁아운동의 세력 확산

. 탁아행정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조례 제정 작업. -광주지역 탁아관계조례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

2. 구조

인원의 한계와 조직력의 부족으로 91년 3개의 부서를 2개부서로 축소함.

. 실행위 모임을 대표자회의로 변경

3. 각 구조 평가

1) 대표자회의

. 대표자 모임이 정례화 되었다.

. 대표자 모임 이후에 전체모임이 고디어지면서 사전 고민시간이 마련되었다.

. 불참 탁아소의 경우 개별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 각 단위의 보고가 문서화되지 못하였다.

2) 조직분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주1회의 일정으로 참가자들의 사전준비 부족, 교육내용이 크게 부담가지 않는 내용이어서 좋았으나 모임시간이 엄수되지 못하였다.

3) 아동분과

. 지탁연과의 연대로 분과모임이 광주지역에서도 지속되어졌다.

. 아동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요구되어진다.

. 탁아소가 완전히 자리잡으려면 아동교육분과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아동교육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되어진 속에서 우리아이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교육관계자 아동교육 연구모임이 꾸려졌으면 좋겠다.

4) 자활관리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광탁위 전체 탁아소에 자활이 배치되었다. 자활가 전체모임이 요구되어진다.

4. 총괄 평가

탁아조례 제정 요구는 상반기에 활동력있게 추진해왔으나 의회에 상정 보류되자 고민을 더하지 못하고 활동이 정지되어 버림. 앞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계속적인 요구싸움이 요구되어진다.

. 탁아운동세력 확대 측면에서는 간담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만나게 된 가정탁아소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대처하지 못했다. 앞으로 설문조사 등과 같은 사업으로 개별 놀이방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 광탁위 체제강화는 상반기에 오손도손 놀이방이 가입하고 교사야유회를 통한 대표자모임이 이루어졌으나 하반기 계림 아가방의 활동이 미약한 상황이다. 앞으로 활동력이 낮은 탁아소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강 령

1. 우리는 기층 기혼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매진한다.
1. 우리는 이념적, 제도적으로 육아의 사회화가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조직의 민주와 통일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데 기여한다.
1. 우리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데 복무한다.

회 칙

- 회칙 제정 1987년 6월 (1회 임시총회)
 제1차 개정 1988년 3월 19일 (3회 정기총회)
 제2차 개정 1989년 3월 12일 (4회 정기총회)
 제3차 개정 1990년 2월 25일 (5회 정기총회)
 제4차 개정 1991년 1월 5일 (6회 정기총회)
 제5차 개정 1992년 1월 4일 (7회 정기총회)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경인지역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연합체로 탁아연령 아동의 올바른 양육과 일하는 기층 기혼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요활동)

본회는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활동에 임한다.

1. 민주적인 아동교육 확립
2. 기층 기혼여성의 자주적 단결을 위한 교육, 선전, 문화활동
3. 민간 비영리 탁아소의 자율성 확보 및 탁아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4. 탁아교사의 자질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5. 탁아법 개선 등 올바른 탁아제도 확립을 위한 제반 활동
6. 조직의 확대 강화와 관련 단체와의 연대 활동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2 장 회 원

- 제5조 (자격) 1. 정회원 : 지역사회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민간 탁아소와 실무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단 3개월 이상의 탁아경력을 지닌 자에 한한다.
 2. 준회원 : 3개월 이하의 경력을 지닌 자와 특별한 사정으로 탁아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지역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본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동등한 발언권, 표결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제반 활동과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한다.
3.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의 일부를 제한한다.

- 4.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제반 활동을 할 수있다.

제8조 (회원징계)

- 1.본 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결의사항을 위배하였을 시는 지역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 2.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본회는 지역대표자회의의 결의로서 징계위원회를 둘 수있다.

제9조 (징계의 절차와 종류)

- 1.회원의 징계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2.징계받은 회원이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3.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 절 총 회

제10조 (구성)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회기) 본 회의 회기는 전년도 11월 1일 부터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소집) 1.총회의 소집은 정기화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2.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지역대표자회의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회의 성립과 결의)

- 1.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2.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3.다만 정관의 변경과 임원 불신임은 정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임무) 총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 2.감사 보고
- 3.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4.정관 심의 및 개정
- 5.임원 선출
- 6.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해체
- 7.임원의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8.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

제 2 절 이 사 회

제15조 (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탁아에 관심이 있는 인사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6조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 1.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방향 제시
- 2.본 회의 재정 및 운영 지원
- 3.이사장 및 이사 선출

제17조 (회의)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본 회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활동 내용을 보고한다.

제18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제 3 절 지 도 위 원

제19조 (지도위원) 본 회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지도위원을 둘 수있다.

제 4 절 지역대표자회의

제20조 (구성) 본 회의 지역대표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지역위원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21조 (회의) 지역대표자회의는 월 1회 이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임무) 지역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본 회의 발전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 논의

- 2.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및 결정
- 3.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 선임
- 5.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 6.회원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7.임시총회 소집 요청 심의에 관한 사항
- 8.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결의

제23조 (지역위원회 대표)

지역위원회 대표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1인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5 절 집 행 위 원 회

제24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시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시 소집한다.

제26조 (임무) 집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총회 및 지역대표자회의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 계획 수립 및 건의
- 3.본 회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4.총회 및 지역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안건 수립
- 5.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절 지 역 위 원 회

제27조 (회의) 지역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지역대표가 소집한다.

제28조 (구성) 지역위원회는 활동지역을 근거로 모든 회원이 각 지역위원회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임무) 각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1.지역위원회 대표 선출
- 2.각 탁아소가 지역내 연대를 통하여 탁아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3.지역내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한다.

제 7 절 부 서

제30조 (부서) 본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서를 둘 수있다.

제 8 절 임 원

제3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약간명
- 3.회계감사 약간명

제32조 (임무) 1.회장의 임무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회계 감사위원 :본 회의 재정 지출과 회비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33조 (임원의 선거와 임기)

1.본 회의 임원은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다.

3.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절 사 무 국

제34조 (구성)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된다.

제35조 (임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 1.사무국장은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여 사무국을 대표한다.
- 2.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각 부서활동의 전문적 역할을 담당한다.

제36조 (임면) 사무국장과 간사는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대표자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면된다.

제 4 장 재 정

- 제37조 (내용) 재정내용은 자체 회비와 후원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8조 (관리) 1. 사무국장이 수납, 출납을 관리하며 회계사항을 보고한다.
2. 출납은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 제1조 (통상관례) 본 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2조 (시행) 본 회의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8회 정기총회

회칙 개정안

1. 개정 사유

93년도 본 회의 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긴박하게 제기되어 이에 재정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보다 조직적인 관계 및 내용으로 행하게 위하여 그간 지대의의 논의의 결과로 재정사업국을 두고 담당자를 선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회칙 개정안에 있어서는 재정사업국 신설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2. 개정안

제 3 장 조직

제 10 절 재정사업국

- 조 1. 본 회의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사업국을 둔다.
2. 재정사업국장은 재정사업의 운영을 총괄 책임진다.
3. 재정사업국의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선거에 관한 내규

(1993. 1. 5.)

1.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회기 마감 후 11월 첫주 부터 선거공고에 들어간다.
 - 2) 각 지역별로 후보추천을 하여 지역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3) 지역대표자회의는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추대 및 선거관련 사업을 관장하도록 한다.
 - 4) 각 후보의 정견은 소식지나 별도의 기회를 통해 선거전에 전회원에게 공지한다.
 - 5) 추대된 후보들은 총준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2. 후보의 자격 기준
 - 1) 지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로 2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 2) 가급적 지역대표나 지역위원회 임원을 역임한 자.
 - 3) 지역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추천을 받은 자.
 - 4)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능력이 있는 자.
 - 5) 기타 지역대표자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임원 보궐 선거를 하게 된 배경

1. 부회장 보궐 선거

양은희 부회장이 인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의 상근 총무로 일하게 되어 본 회 부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바 이를 지역대표자회의에서 받아들여 부회장 1인이 공석이 되었다.

이에따라 본 회 감사로 있는 남미영 (구로 새터어린이집)씨가 후보추대를 받아 지역대표자회의는 총회에 추대를 하게 되었다.
2. 감사 보궐선거 2인

현재 감사인 남미영 씨가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게 됨에 따라 감사를 재 선출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 유옥순(구로 톨튼이 놀이방 전 교사) 씨가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탁아업무를 하지 않게 되어 감사의 재선출이 필요하다.

임원 후보자 약력

1. 부회장 후보

이름 : 남미영

나이 : 1961.10.27 생

약력 : 1984년 성심여자대학교 화학과 졸.

1987년 새터어린이집 교사

1988년 지탁연 신진교육강좌 1기 수료

1990년 구로지역위원회 지역대표

1992년 현재

구로지역위원회 자모조직분과장, 중앙자모조직분과위원

감사위원, 새터어린이집 책임 교사, 1남의 어머니

2. 감사 후보

정성희 : 구로지역위원회 지역대표(1992년) 온누리 탁아방 책임교사

신현희 : 성남지역위원회 개특위원(1992년) 새날 아기마을 교사

천인숙 : 중부지역위원회 소속 개구장이 어린이집 책임교사

신.구 지역대표자 명단

북부지역위원회 :	김선자 (동근나라) - 태재원 (어린이 사랑방)
동부 //	: 조용란 (오손도손) - 미정
중부 //	: 김연희 (또래 놀이방) - 유임
봉천 //	: 김혜은 (씩씩이) - 정은진 (봉천동 애기방)
구로 //	: 정성희 (온누리) - 김명신 (튼튼이)
안산 //	: 이은애 (진달래 동산) - 임남희 (진달래 동산)
안양 //	: 신인순 (한무리) - 미정
부천 //	: 최순옥 (부천 튼튼이) - 유임
성남 //	: 곽삼화 (하늘 어린이집) - 미정
인천 //	: 김동주 (상근) - 유임
대전 //	: 권오원 (샘골) - 유임
대구 //	: 안경숙 (탁아소 준비 중) - 유임
부산 //	: 강애란 (우리아가동산) - 미정
전북 //	: 오춘자 (금암 어린이집) - 미정
군산 //	: 위양자 (해뜨는 동산) - 유임
광주 //	: 박말신 (도담도담 아기둥지) - 유임
마산 //	: 김지숙 (두레아가동산) - 미정

사무국장 : 이정희

재정사업국장 : 최선희

1993년도 활동전망

지난 '92년은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집중의 원칙의 실현하고 내부규율을 강화하여 조직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또한 '93년도의 개정의 전면화국면을 앞두고 '지원요구투쟁'이라는 새로운 제도투쟁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개정의 입지를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써 탁아운동의 주체역량 강화와 세력확대를 꾀한 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각의 축적된 사업역량을 유지시켜내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내부조직 역량강화에 있어서 다양하게 훈련된 교사들의 역량이 다시 지역위원회 개별 탁아소로의 역량강화라는 부분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념, 정책의 생산도 '93 영보법 개정의 전면화를 앞두고 더욱 정교, 전문화 시켜야 할 것이다. 당연히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93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93년을 9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 제정 이후 축적된 우리의 역량을 총 결집해 법개정활동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과조치 마감을 1년 앞둔 '93년은 주, 객관적으로 우리 운동에 있어서 매우 고비가 될 해이다.

보다 자세한 사업전망 및 계획은 수련회 이후 지대의를 통해 모아질 것이며 본 글은 지난 평가를 거치면서 대략 논의된 사업전망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그간의 논의속에서 나타난 지략면 93년도의 중점 사업은 '개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법개정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개특위 구조를 중심으로 개정활동의 청사진을 실현한다. 즉 중앙, 확대 개특위 구조를 통해 지역별, 사안별 일상투쟁을 전개하며 연구부 및 전문집단, 연대세력과 연계를 통해 영보법 전면개정을 실현해 나간다. 동시에 지역내 개특위사업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여 대상에 따른 전문영역의 체계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 대 보사부, 대 지방 행정단위, 지방의회 투쟁 등)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92년 개편되면서 나타난 각 구조들의 활동이 9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부와 조직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연구과제와 결과물들이 총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지역위원회의 역량 안정화를 이룬다.

- 1992년의 일련의 교사재교육 훈련과 조직관리를 통해 다져진 성과를 기반으로 각 지역위의 역량 강화를 꾀하며 특히 지역간의 편차를 보건데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각 지역위별로는 전체 사업방향성에 맞추어 중앙사업과 지역사업, 중점사업과 일상사업의 균형잡힌 사업배치로 활동성을 최대화한다.

- 각 지역 행정단위와 관련 지역의 독자사업을 추동한다.

- 올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몇몇 지역에서 실시되어진 민탁연대의 내용의 강화하고 이를 전 지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3) 본 회의 재정자립을 위하여 재정사업의 기반을 확립한다.

- 그간 우리사업을 지원하던 것이 내년을 기점으로 마감된다. 따라서 '93년 한해는 재정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해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은 회비의 현실화이지만 아직 그럴만한 시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본 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이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지역위, 각 탁아소, 교사, 후원인 등이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에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재정사업을 담당할 신설 구조는 중앙구조와의 긴밀하게 결합하되 전 조직원의 관심속에서 재정사업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함께 부르는 노래

갈 끼 야

김정환 글
김석준 곡

1. 갈 끼야 나는 갈 끼야 - 끝속 에서가아나 -
2. 갈 끼야 나 도 갈 끼야 - 끝속 에서가아나 -
이 제는 진 짜 갈 끼야 - 분단 의벽을넘어 -
이 제는 합 께 갈 끼야 - 분단 의벽을넘어 -
통일 의열 차타고 가는길에 - 남 북합 의서를 손에손에들고 -
통일 의열 차타고 가는길에 - 양 코배기들을 한줄로엮어서 -
지 굿지굿지굿 분단독재 - 국 가보안법 끝 장 내 고 -
지 굿지굿지굿 제국주의 - 내 정간섭을 끝 장 내 고 -
감 옥문을 활짝열고 - 우리동지들찾아서 -
감 살 팔선을 활짝열고 - 우리형제들찾아서 -
두 손맛잡고 가는길에 - 철천만 만나보자 -

조국과형준(서훈) 노래단조국과형준

희망의 노래

김호철 작곡

E A E
 너의 빈 잔에 술을 따라-라 - 너의
 나의 술 참도 가져가-라 - 나의
 A E B7
 마른 움에 물이 젖어-라 - 피땀
 피땀
 A E C#m
 흰 노동에 - 무너진 가슴에 - 우리
 흰 노동에 - 무너진 가슴에 - 우리
 E A E
 희망의 술을 따라-라 - 보라!
 희망의 술을 따라-라 - 보라!
 E A
 거대하게 - 물아치는 - 태풍
 A E
 의 쓰라린 - 칼바람 - 저
 A E C#m
 더러운 것 - 들 짝 쓸어서 - 우리
 E A E
 해방의 불 밝히라 - DC

들꽃의 노래(노래공장), 송단길출판(전노협2집)

일이 필요해

유조원 작
안세경 작

C Am F G C Am F G
 글 없는 집안일 만 복도반복 그 중의 한가지 먹는 일만 해도
 하 루에 세 번 일 주일에 스물한 번 한 달에 아흔 번 일 년이면 천 번이 넘
 게 글러 떨어지는 바닷물을 읊 리는 시지 프스의 노동 거럽
 여자라서 아내라서
 한평생을 일-해도
 여자라서 어머니라서 사 랑의 이름으로
 남는 것은 빈-껍질뿐 남 편은 바빠지고
 모 - 성애의 이름으로 일 할 의무만을 던져주고
 아 - 이들이 커졌을 때 내 세 상 전부는 부엌바닥
 일 할 권 리는 빼앗아갔네 나는 일이 필 요해
 텅 빈 가슴만 남아있네 나는 일이 필 요해
 사탕 담게 살아갈 - 일이 필요해 사람으로 났으니 사람구실하게 하는
 사탕 담게 살아갈 - 일이 필요해 사람으로 났으니 사람구실하게 하는
 일이 필 요 해 - 나는일이필요 해 -

사랑타령

<중간계>

김호철 작곡

서른한살노총 각 나 애게- 뜨거운가슴으로 다 가와-
스물여덟노처 니 나 애게- 불타는가슴으로 다 가와-

사 랑사 랑 사랑한다- 고백한가시네가 있 다네-
좋 아좋 아 좋아한다- 고백한사나이가 있 다네-

가슴엔사랑- 사랑의단결- 단결로무정- 무정의선 봉-
가슴엔정열- 정열로무정- 무정은해방- 해방의선 봉-

얼 -씨구나 종을치고- 동지동지네사 랑 -

서른한살노총 각 나 애게- 뜨거운가슴으로 다 가와-
스물여덟노처 니 나 애게- 불타는가슴으로 다 가와-

사 랑사 랑 사랑한다- 고백한가시네가 있 다네-
좋 아좋 아 좋아한다- 고백한사나이가 있 다네-

나 도사 랑해 -

출판권출무정(전노협2집)

민들레처럼

민들레 꽃처럼 살아가한다 네가 숨에새긴불타는두 혼

무수한발길 에 짓밟힌대도 민 들레 처 럼

모질고 모진이 생존의땅에 내가 가야할저무정의길 에

온몸부딪히 며 살아가한다 민 들레 처 럼

특 별하지않을 지 라 도 결코 빛 나지않을지라 도 혼하

고 너흔들볼과 어우 러져 거침 없 이피어나는 민 들레 아-

민 들레 뜨거 운 가슴 수천 수백의불씨가되 어 아-

해 방의 불을 부 른 다 민들레의무 혼으 로
꽃다지!집

달동네의 부푼 꿈

<흥겹게>

이 건 곡

1. 바 지근 우 지근 즐라메고삼-았-네
2. 월 세방 린 세방 떠다니는우리신--세

바 가지 바박 바바바박 곁어가며살았 네
노 동자 한분 두분모아 저-축도해왔 네

주 택 복권 에 꿈을 키우 며 희 망도가져왔--지
임 대 주 택 에 꿈을 키우 며 희 망도가져왔--지

임 금 인상 에 소 원 빌어왔--지
주 택 정책 은 모두모두명이--아

보아 이번 임부에는 주 택수당따 넘시 다

영 원한 우리집 만 들어봅시 다

주 택 정책 은 모두모두명이 아 -

철의노동자(전노협)집)

조국과 청춘

시집 "조국과 청춘" 중에서
더불어 사는 소리 곡

나는 해방전 조국의 청 년이다 생명 도 귀중한청년이 다 찬란

한 내일의희망도 소중 하다 그러 나나예전조국이있 다 하나

박에없는조국을위하 여 돌도 없 는 목숨이지 만 조국

을 위해바친청춘 보 다 더 귀중 한 생명어디있으 람

조국과청춘(서울연노래단조국과청춘)

전하는 여성노동자

저장곡 김성민곡

- 아무도 몰려주지 않아도 무라 당당한 이땅의 반
젖문고 잠든아이 나라를 위해 많은웃음번치않고 싸우려간다
1. 귀대 몽둥이보다 더 아픈것은
해방의 하늘을 멀리뚫히고 운명에 맡겨 브러짐이다
나가자 여성노동자 자랑스런 동지여
여성해방 고난 위해 무뎌서라 해방전사여!
 2. 더성변한자성취를 위해 투쟁한대면
평생평생노동계상 영아정리해 해방의눈물꽃 만발하리라
나가자 여성노동자 자랑스런 동지여
노동해방 고난 위해, 무뎌서라 해방전사여!

누가 나에게 이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조호상 시
김성민 곡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네게 부정의 이 길로- 가라 하지 않았네 그러

나 한걸음 또한걸음 어느새 '적들의목전'에 눈물

고개 넘어 노동자의길 걸어 한 걸음씩되고왔을 뿐 누가

나에게이 길을 일러 주지 않았네 사슴

급고 흘러넘칠 노동해방이길-
민중연대전선으로(노동자노래단4집), 꽃다지1집

노래조성
아이들 노래

1. 사람이 태어나서 키만을 얻지만 노동자는 오직 한바퀴를 위해 온다. 끝없는 노동속에 우리 정음 흘러가도- 머리를 묶으면 대모 정줄이다.
2.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을 받지만 노동자는 오직 하루 해방의 고난 위해- 자물가녀희놈들 아-무리 해방아도- 가져갈 수 없는건 동지의 굳은사랑.

후렴: 노동자 가난가난에 후회말라 없나-
모든 투쟁이다! 92 내일은 해방!

아이들과 불러보아요 ♪

눈이 내리면

김성민 요-곡

눈이 내리면 내 마음은 푸르다
눈이 내리면 내 마음은 푸르다
눈이 내리면 내 마음은 푸르다
눈이 내리면 내 마음은 푸르다
눈이 내리면 내 마음은 푸르다
눈이 내리면 내 마음은 푸르다
눈이 내리면 내 마음은 푸르다
눈이 내리면 내 마음은 푸르다

애기 물방울

박길애 작사
박신혜 작곡

만약에 간곳없어 이슬방울안았네 하늘에서내-려온 작은-애기물방울

물이모여아수하고 냇이 모여인사하고 정다움게서모여 미끄러움탄다네

배구로르락-락 - 포로로르락-락- 어찌들무하-면서 미끄-럼을잡힌다

아기새의 눈물

김성관 요·곡

이 눈물 속에 새 길 이 모든 눈물
이 눈물 속에 새 길 이 모든 눈물

하 눈물 투수 가 다 가 와
하 눈물 투수 가 다 가 와

이 눈물 눈물 따 라 아 기 새 눈물
이 눈물 눈물 따 라 아 기 새 눈물

눈 리 며 다 시 는 이 곳 에 안 올 내 아
눈 리 며 다 시 는 이 곳 에 안 올 내 아

나는 토끼

김성관 요·곡

나 는 토끼 나 는 토끼 나 는 토끼 나 는 토끼
나 는 토끼 나 는 토끼 나 는 토끼 나 는 토끼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달 은



모고 싶었죠

김성관 요·곡

오 해 간 받 습 니 다 정 받 받 습 니 다
오 해 간 받 습 니 다 정 받 받 습 니 다

너 무너 무너 고 싶 었 죠 눈 볼 선 영 이 모 모 코
너 무너 무너 고 싶 었 죠 눈 볼 선 영 이 모 모 코

라 라 라 라 라 라 정 받 받 고 싶 었 죠
라 라 라 라 라 라 정 받 받 고 싶 었 죠

라 라 라 라 라 라 눈 볼 선 영 이 모 모 코
라 라 라 라 라 라 눈 볼 선 영 이 모 모 코

여기는 방송국

김성관 요·곡

두 두 두 여기 는 라 디 오 방 송 국 입 니 다
두 두 두 여기 는 라 디 오 방 송 국 입 니 다

만 나 시 습 니 까 여 러 분 남 세 알 려 드 리 죠 오 늘 온 눈 이 오 셴 지 때 요
만 나 시 습 니 까 여 러 분 남 세 알 려 드 리 죠 오 늘 온 눈 이 오 셴 지 때 요

달 달 달 눈 이 오 셴 때 눈 눈 눈 눈 눈 이 오 셴 때
달 달 달 눈 이 오 셴 때 눈 눈 눈 눈 눈 이 오 셴 때

우리 나라지

김성균 작곡

사 랑 들 아 읊 어 고 운 나 라
살 기 좋 은 나 라
꽃 들 도 새 들 도 노래 하 는 나 라
우 리 나 - 라 지

춤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김성균 작곡

살 기 걸 는이대리만 산 속에도 뭐 어질까...?
배 곯 앓 버리듯만? 산 속에도 뭐 어질까...?
춤 지 않을까? 배 고 프 지 않을까? 산 속에도 - 뭐 어질까 사나?
산 속에도 다 알 뵈 어질까 사나?

모퉁이 모퉁이 얼마나 주우니? 춤지 않아 나는 뭇꽃을 집었잖아
다달리아 얼마나 배고프니? 걱정하지 마 겨울이 오기 전에 엄마 아빠가 내가 제
일 좋아하는 도토리 팥밥을 창고에 채워 놓으셨어
배고프지 않아

그렇겠구나 정말다 참이구나 라 라라 라 략 라 ..

어느 날

어 느 날 개 미 한 마 리
어 느 날 개 미 한 마 리
꽃 님 어졌 어 요 미 보 세 요 - 미 보 세 요 - 나 중 살 려 주 세 요 -
꼭 밟 어졌 어 요 미 보 세 요 - 미 보 세 요 - 나 중 살 려 주 세 요 -
개 미 아 개 미 아 밟 마 나 아 프 니?
개 미 아 개 미 아 밟 마 나 아 프 니?

불조심

김성균 작곡

불 불 불 불 불 이 님 이
불 이 님 어 요 불 이 님 어 요 불 이 님 어 요
안 되 겠 네 요 안 되 겠 네 요 조 심 조 심
불 조 심 조 심 해 이 요 조 심 해 이 요

